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누가 이웃을 돌보는가?

2012년 10월 17일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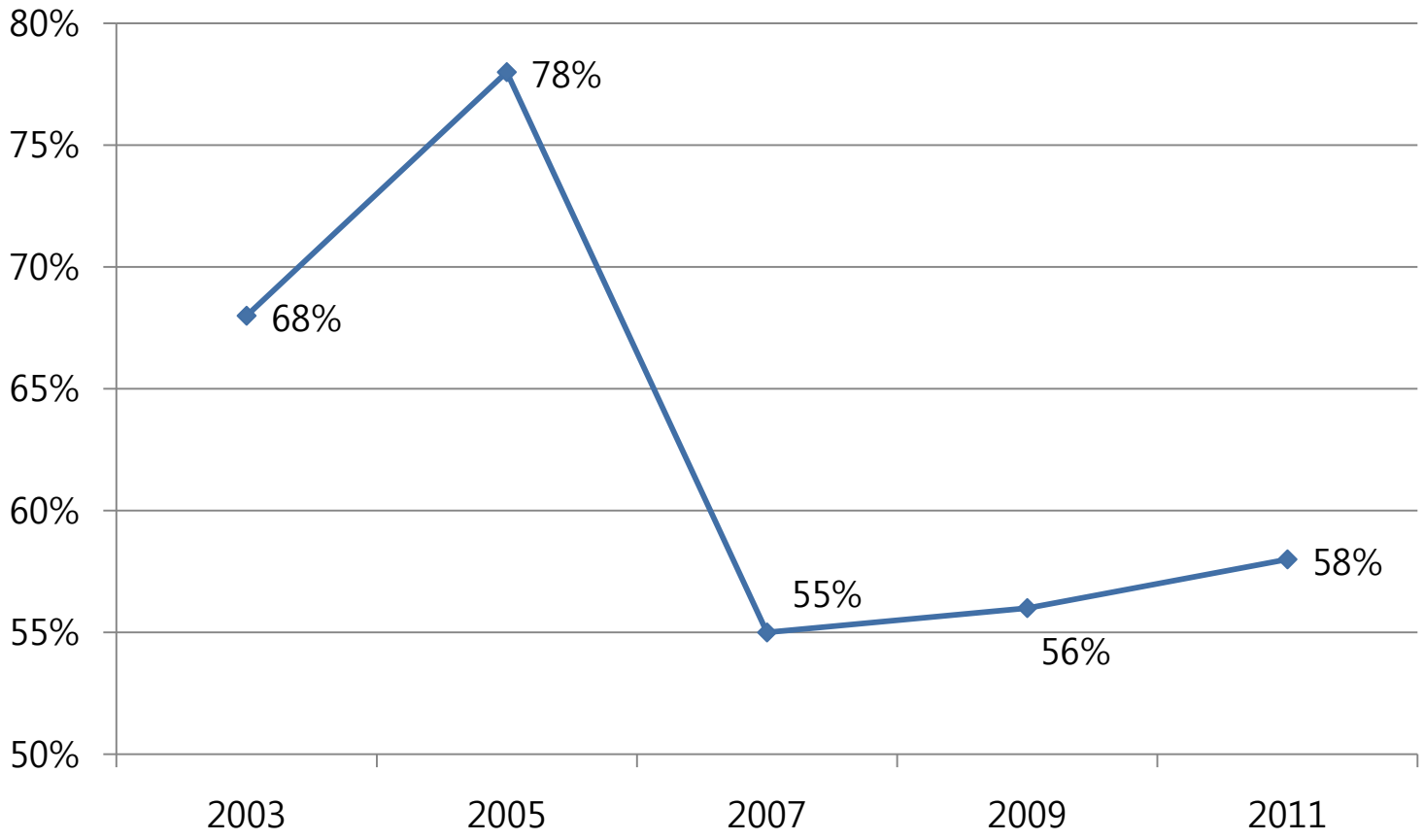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III. 기부와 자원봉사의 결정모형 추정
IV. 요약 및 결론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3년~2011년

- 한국인의 기부 참여율의 연도별 변화
- 한국인의 평균 기부금액의 연도별 변화
- 한국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의 연도별 변화
- 한국인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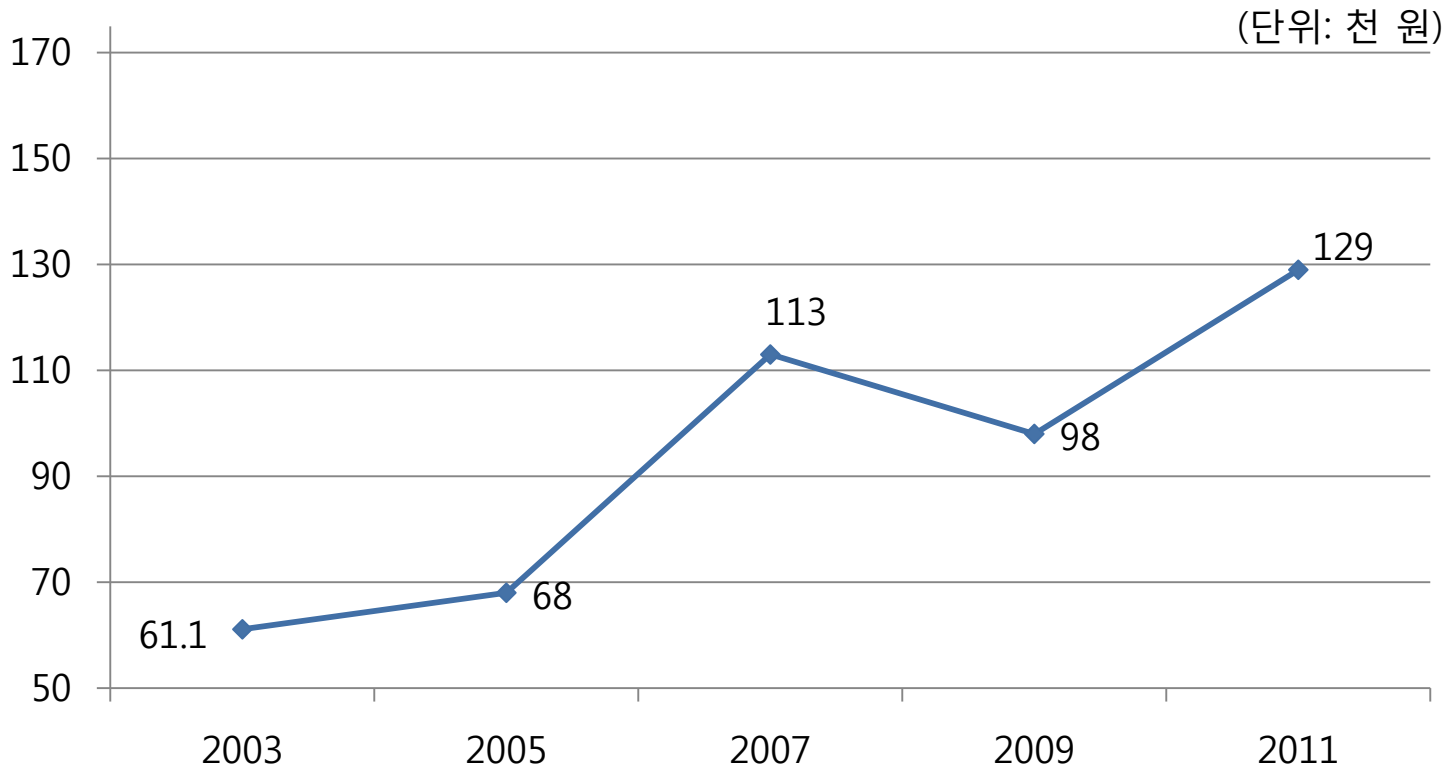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3년~2011년

한국인의 기부 참여율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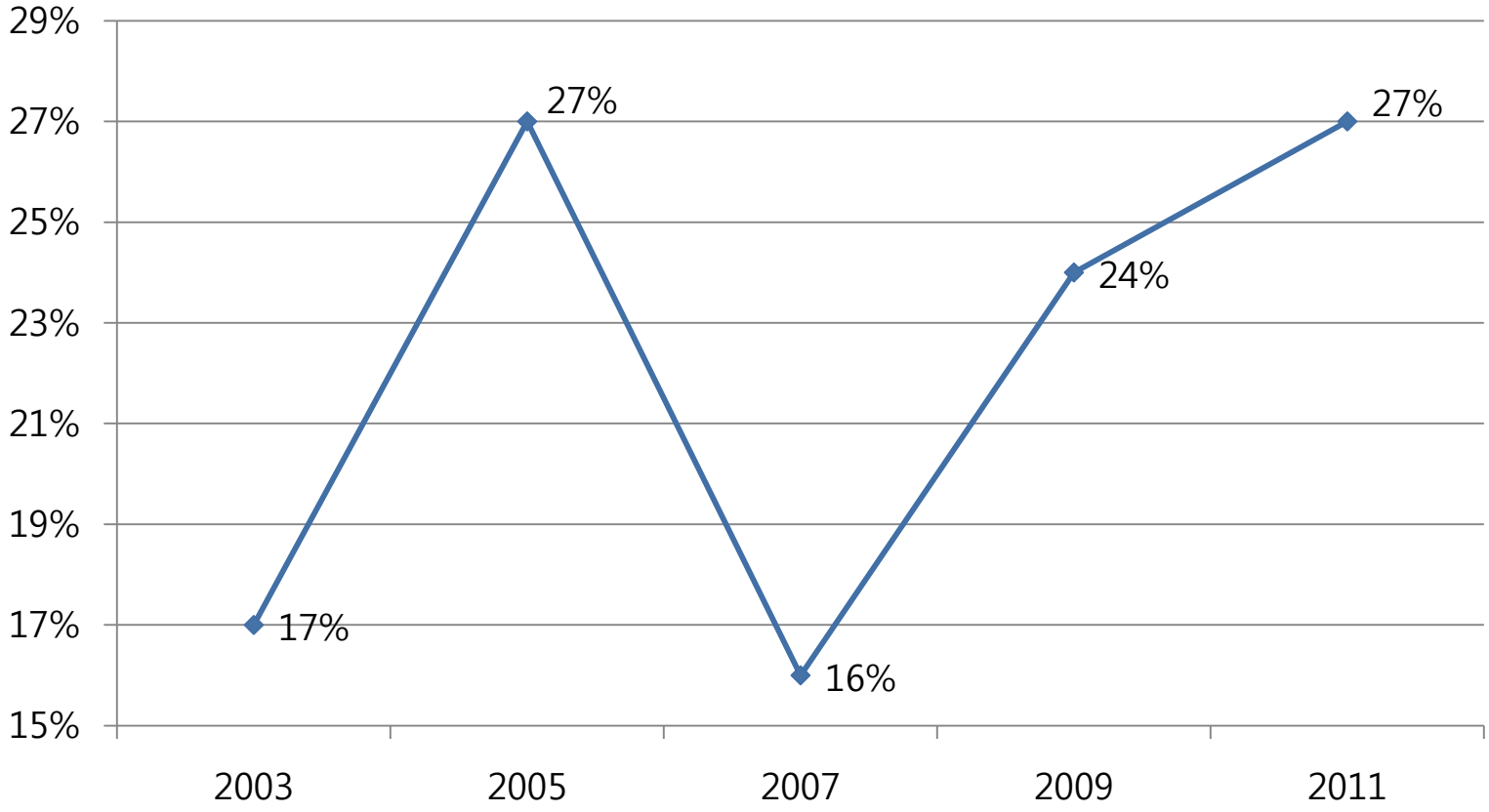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3년~2011년

- 한국인의 평균기부 금액(secular giving)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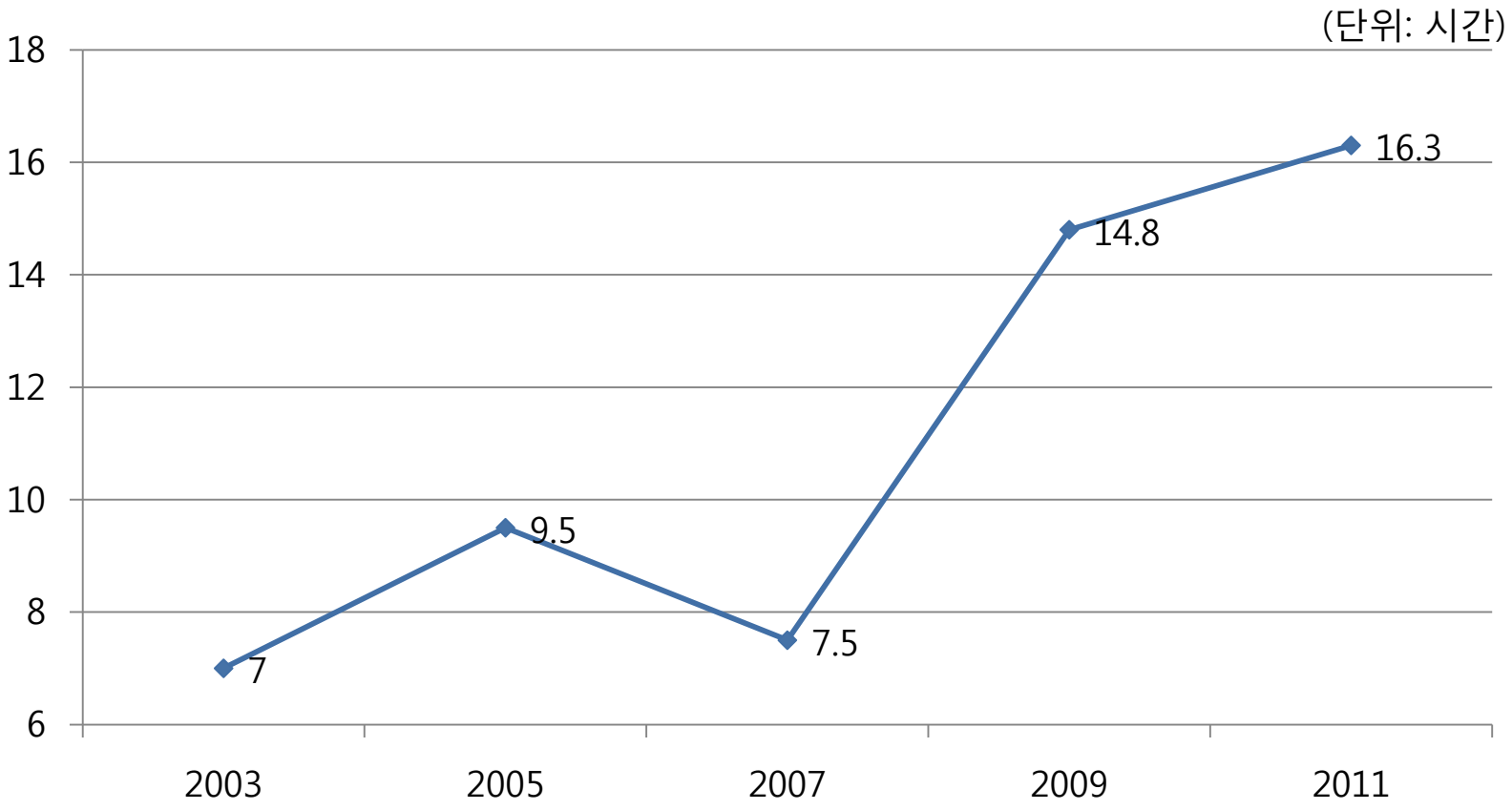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3년~2011년

- 한국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의 연도별 변화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3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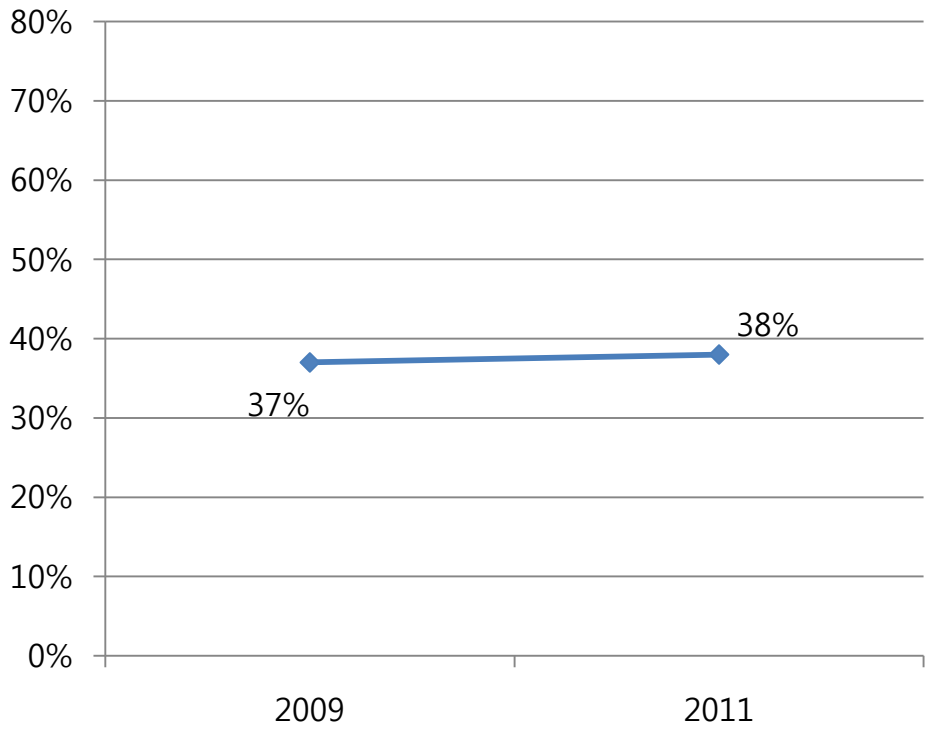
- 한국인의 평균 자원봉사 (secular volunteering) 시간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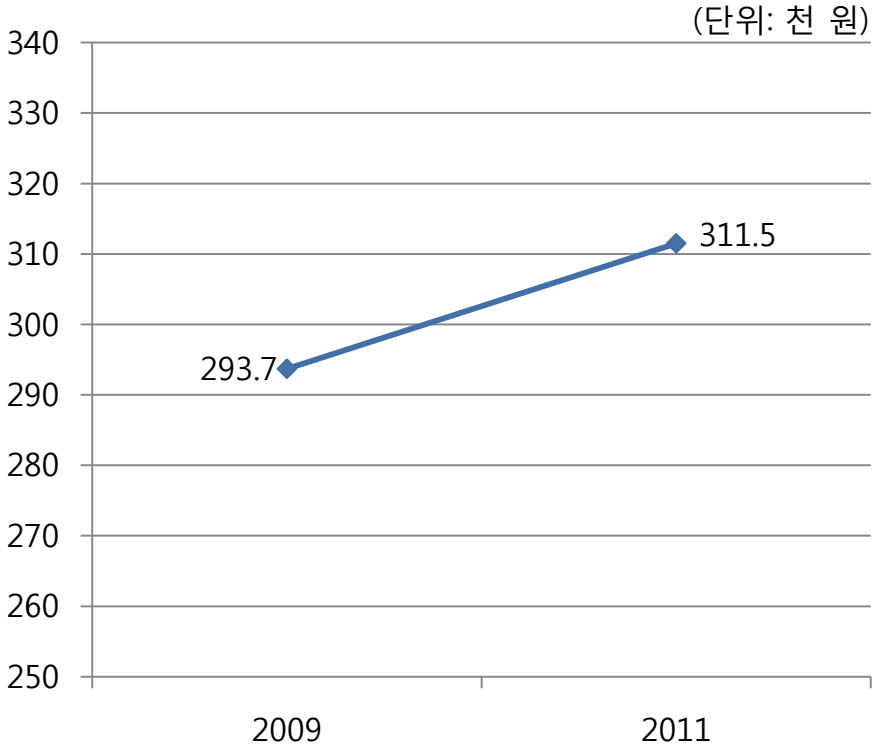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9년~2011년

한국인의 종교적 기부 참여율 및 평균 기부 금액의 연도별 변화

종교적 기부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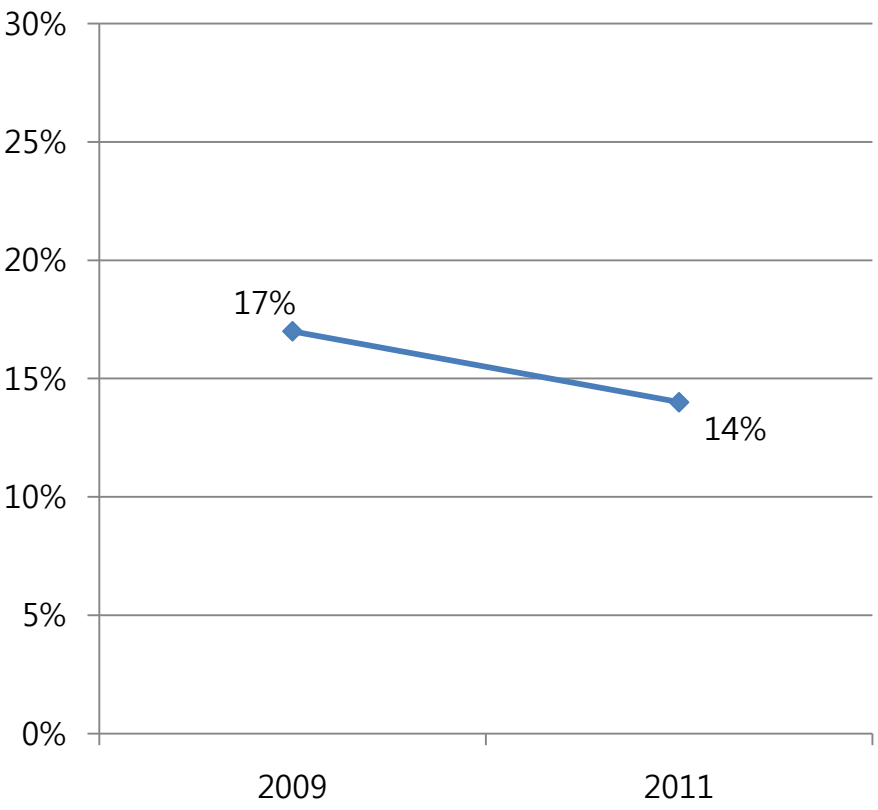
평균 종교적 기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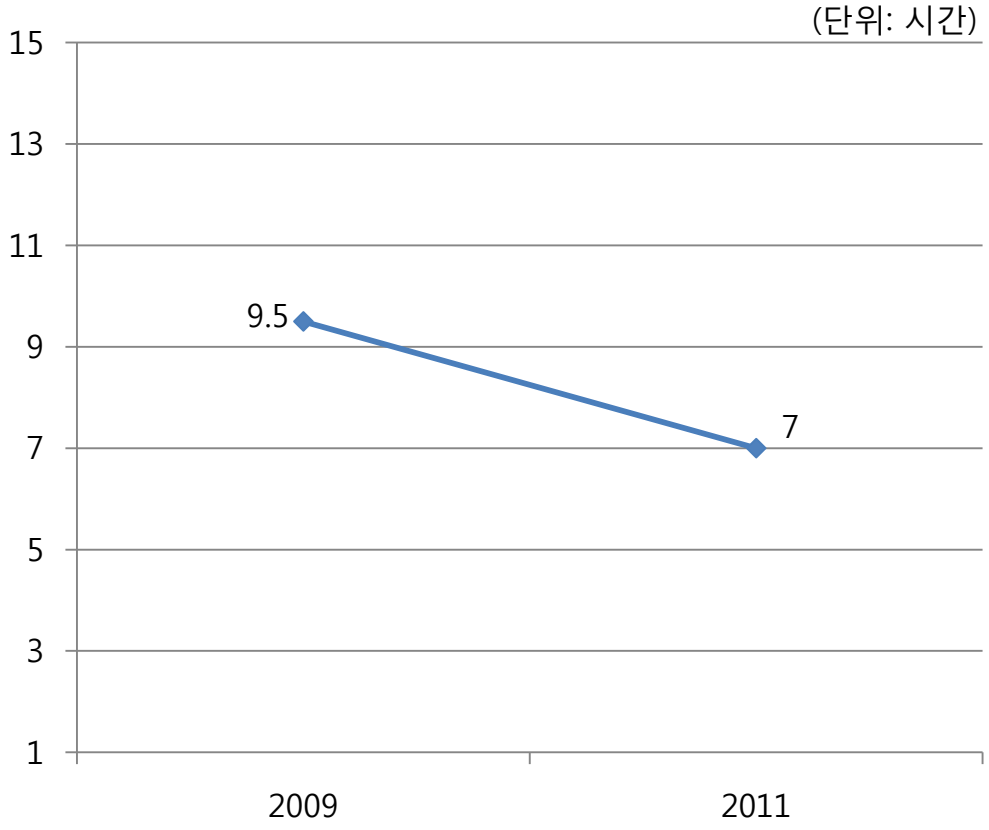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9년~2011년

한국인의 종교적 자원봉사 참여율 및 평균 시간의 연도별 변화

종교적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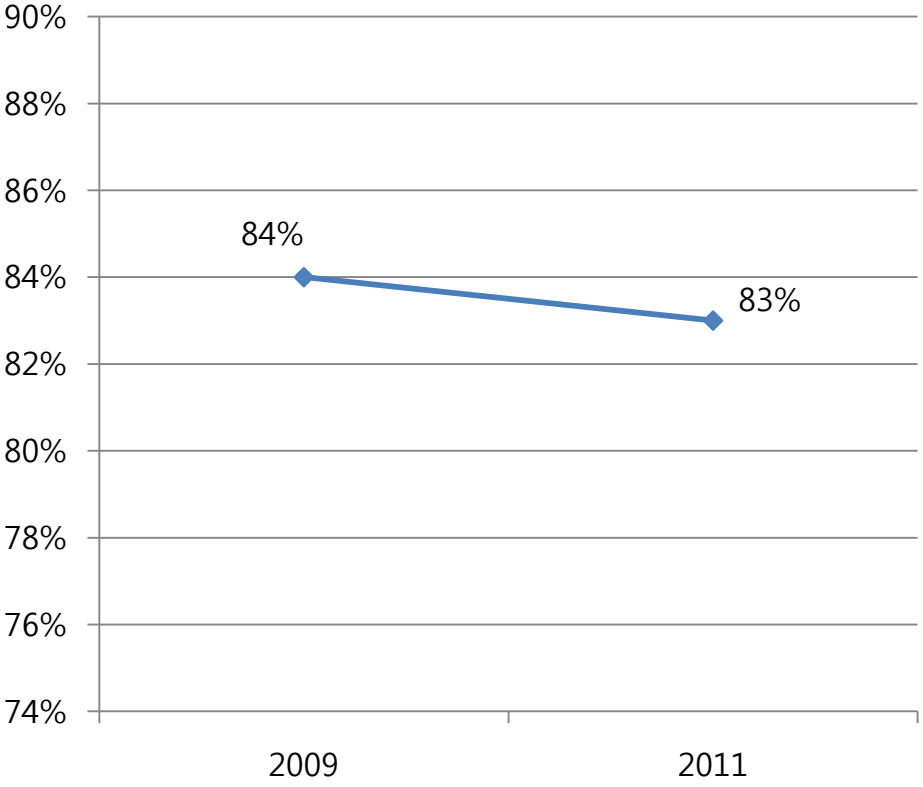
평균 종교적 자원봉사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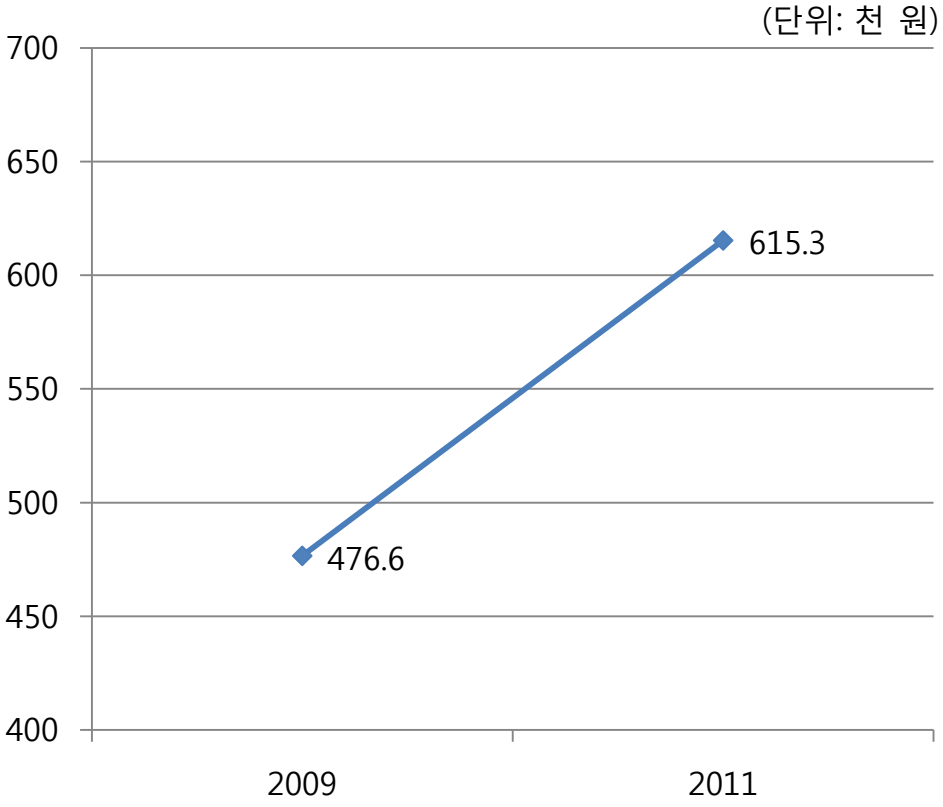
I. 기부와 자원봉사의 Trend : 2009년~2011년

한국인의 경조사비 참여율 및 평균 경조사비 금액의 연도별 변화

경조사비 참여율



평균 경조사비 금액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누가 이웃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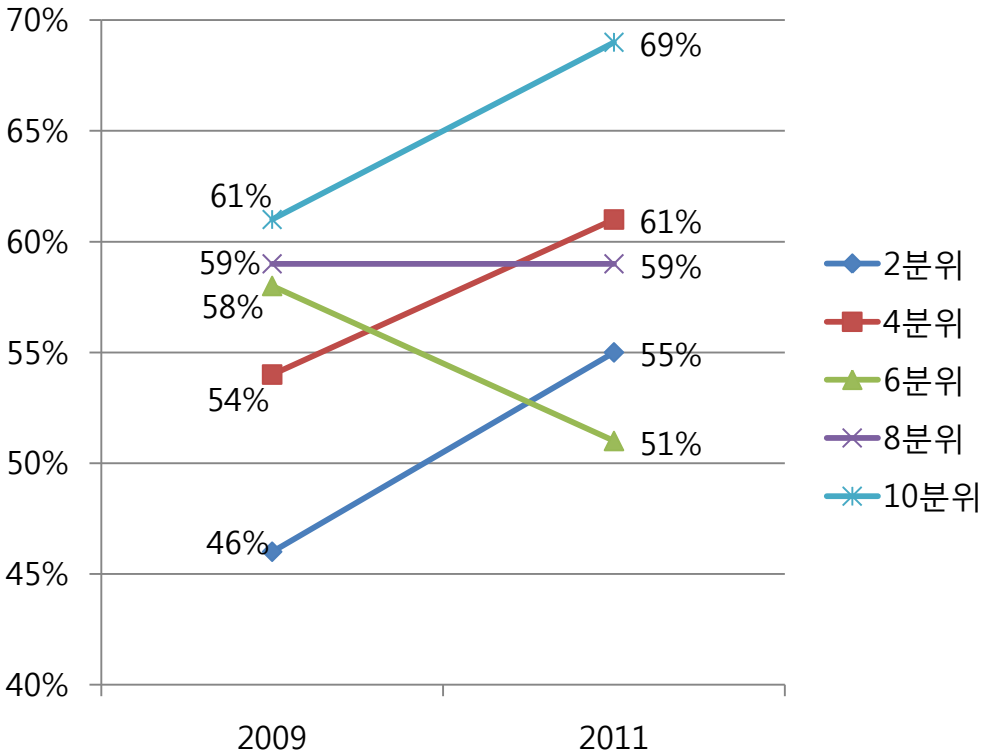
- 소득수준별
- 연령대별
- 교육수준별
- 종교별
- 직업군별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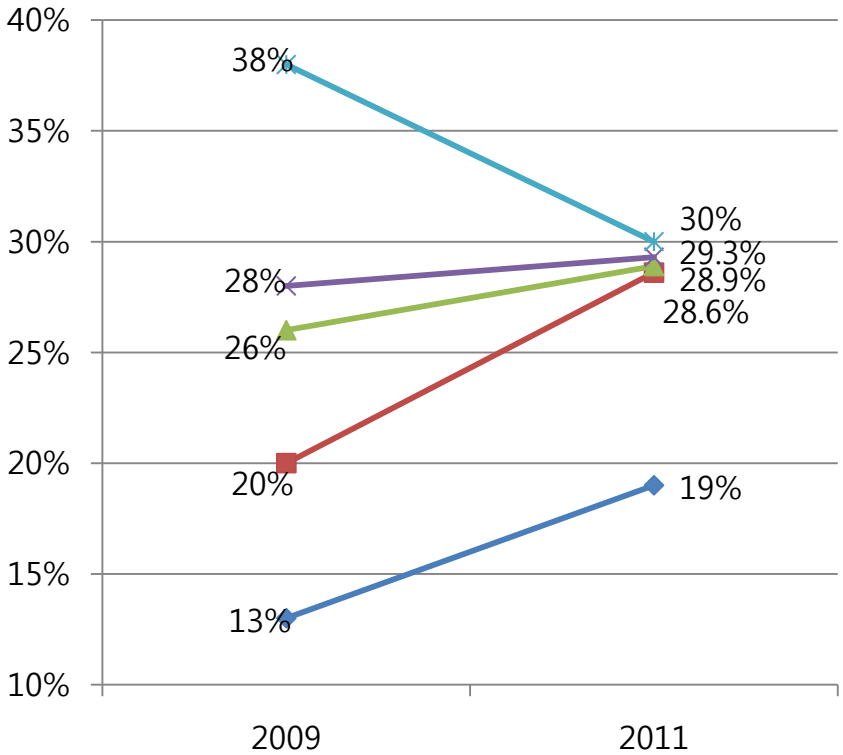
소득수준[1] 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분석

-기부 참여율에서 소득수준 6분위의 기부 참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소득수준 상위 10분위의 기부참여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고, 소득수준 하위 2분위의 기부참여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의 경우도 역시 소득수준 상위 10분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고, 소득수준 하위 2분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부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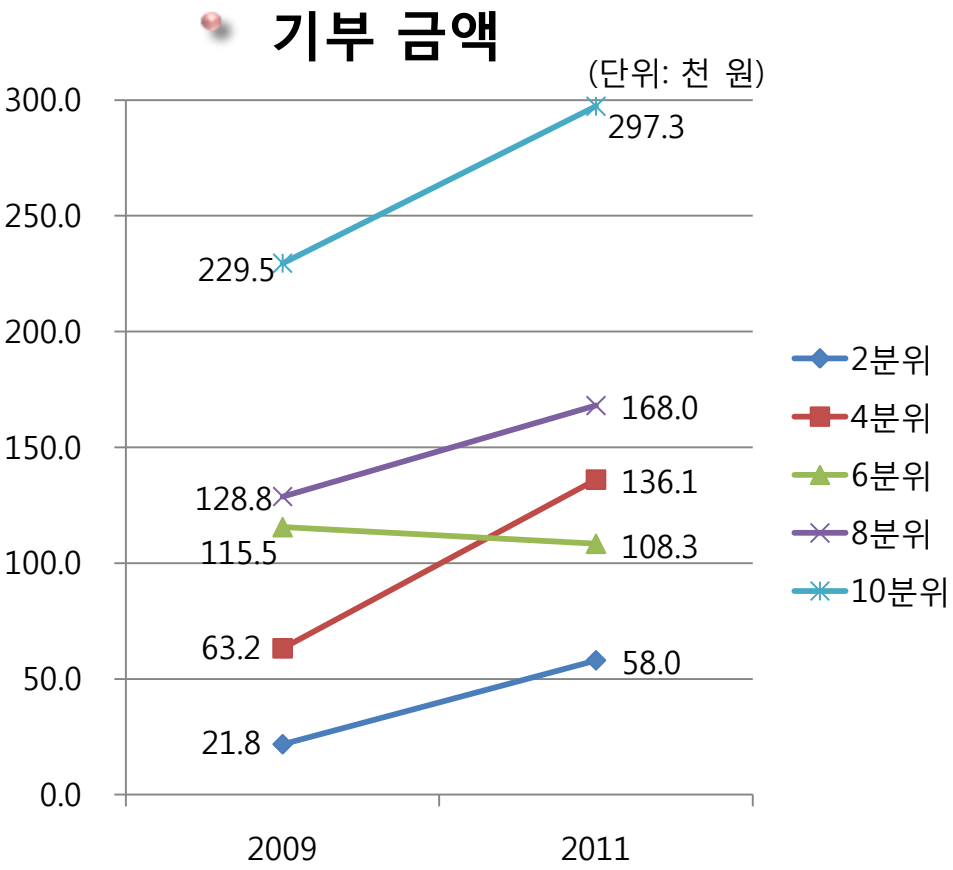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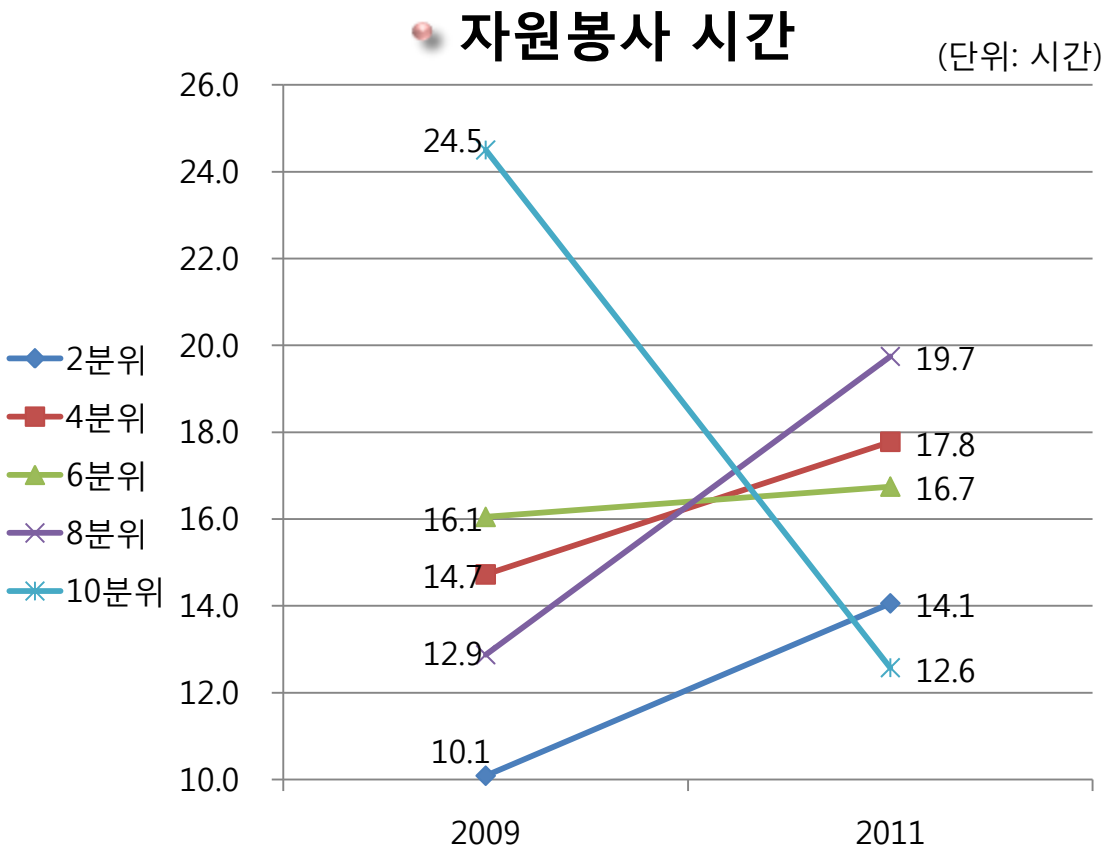
1) 국가통계포털(가구소비실태조사-월소득10분위계층)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소득수준 별 기부금액 및 자원봉사시간 분석

-기부 금액에서 소득수준 하위 2분위의 기부 금액이 지속적으로 가장 낮고, 상위 10분위의 기부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부 금액에서 소득수준 6분위는 소폭 감소한 반면, 나머지 소득수준에서는 기부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시간의 경우 소득수준 상위 10분위의 자원봉사 시간 감소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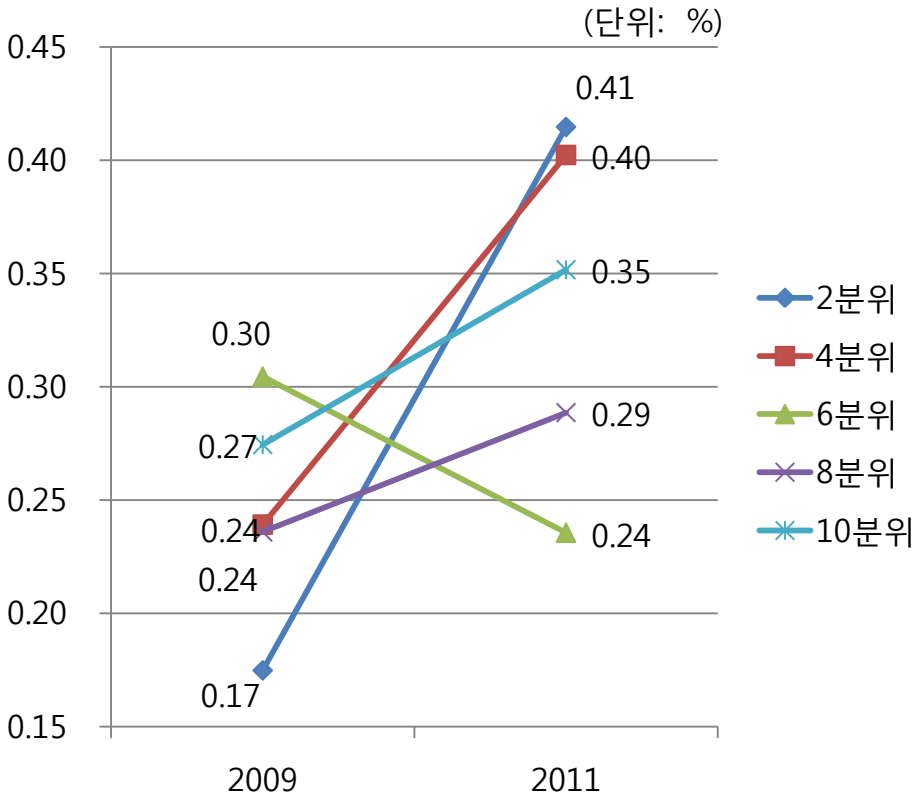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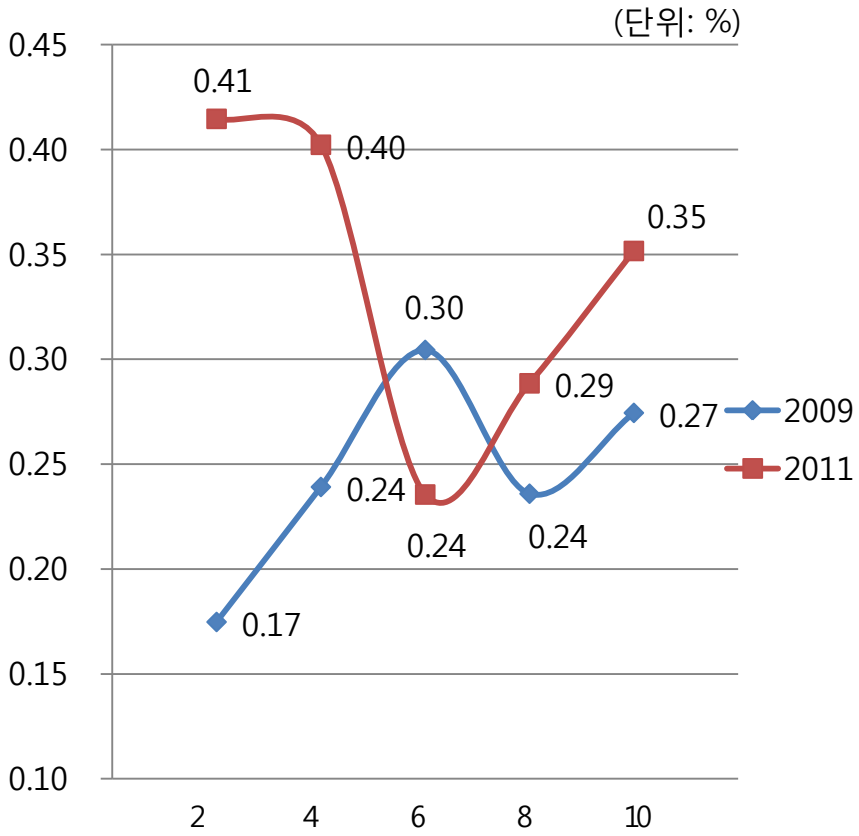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소득수준 별 기부노력에 대한 분석

-절대적인 규모가 아닌 소득 대비 기부비율을 분석했을 때, 과거와는 달리 소득수준 하위 2분위와 4분위의 기부노력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래서 U자형의 모습이 관찰됨.
-2009년 기부노력이 가장 높았던 6분위의 경우 2011년 가장 낮은 기부노력을 보였고, 나머지 소득수준들은 모두 기부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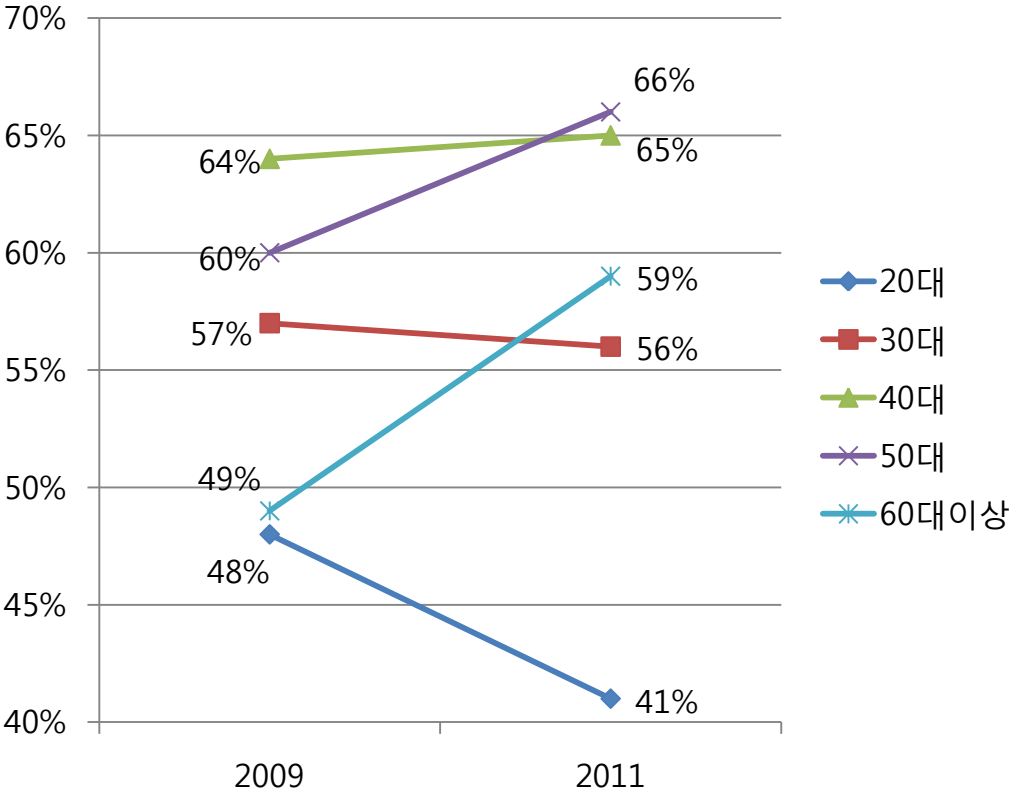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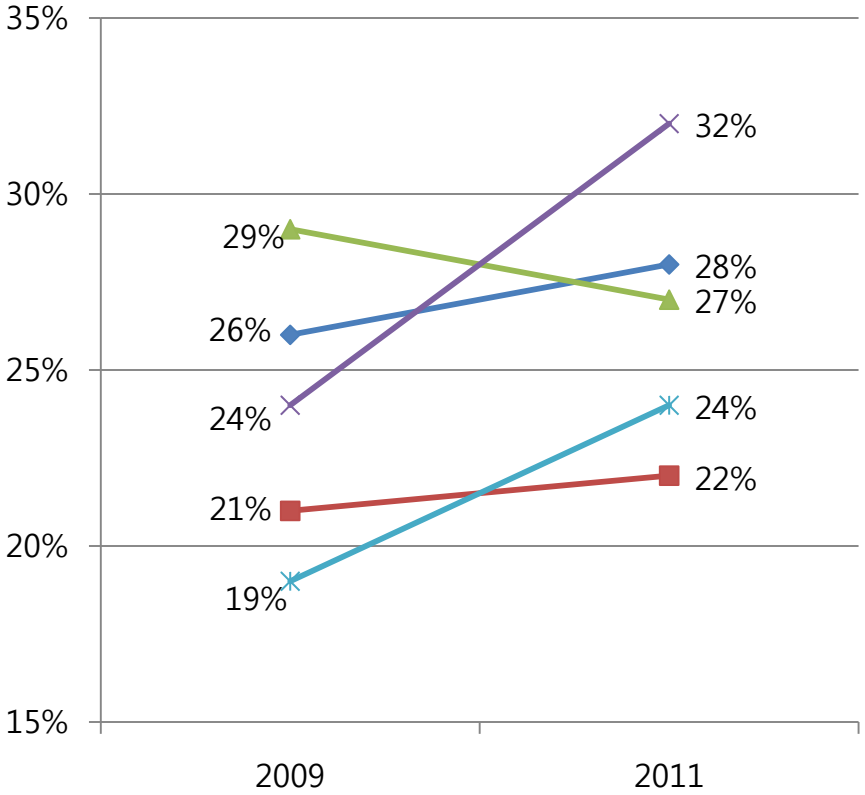
연령대 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분석

-기부 참여에서 20대가 지속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40대와 50대의 기부 참여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율에서는 50대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기부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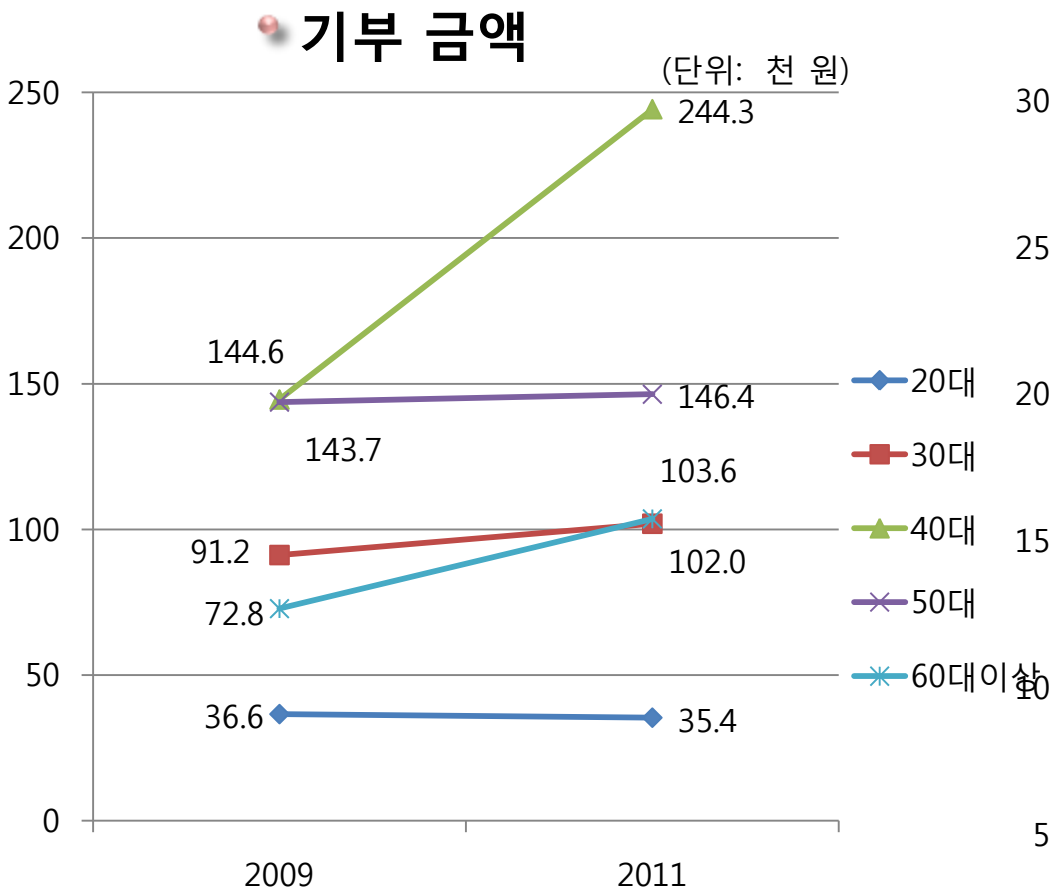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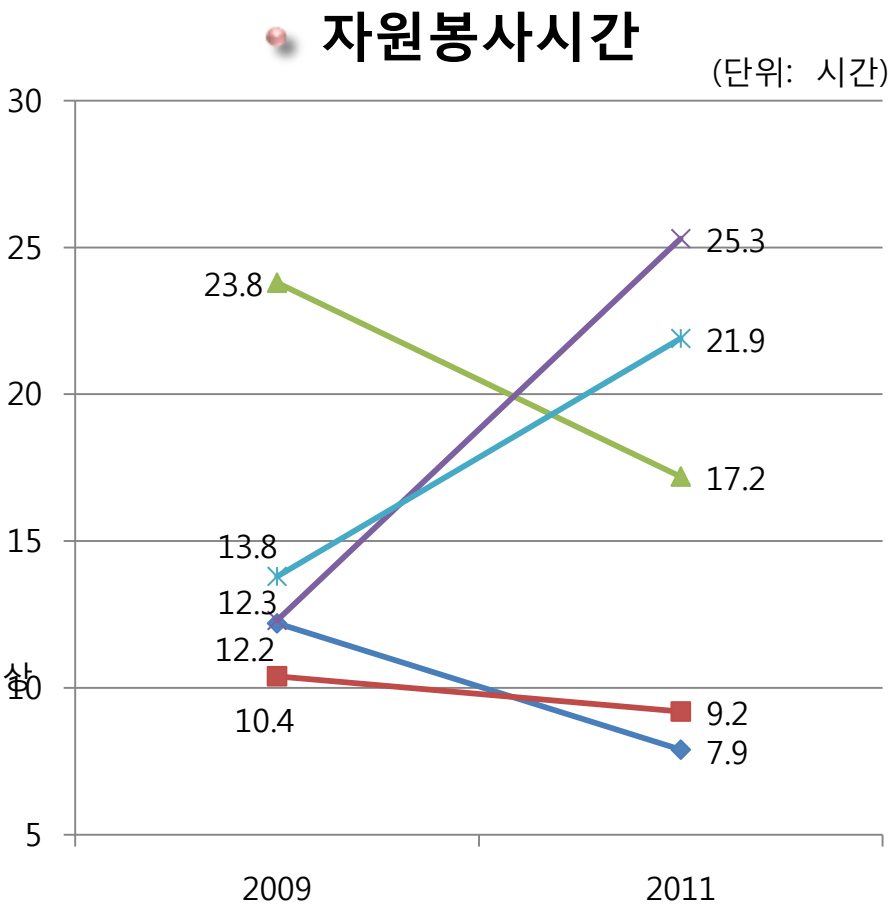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연령대 별 기부금액 및 자원봉사시간분석

-기부금액은 20대가 지속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40대의 기부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남
-자원봉사 시간의 경우 참여율과 마찬가지로 5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기부금액이 가장 높았던 40대의 감소폭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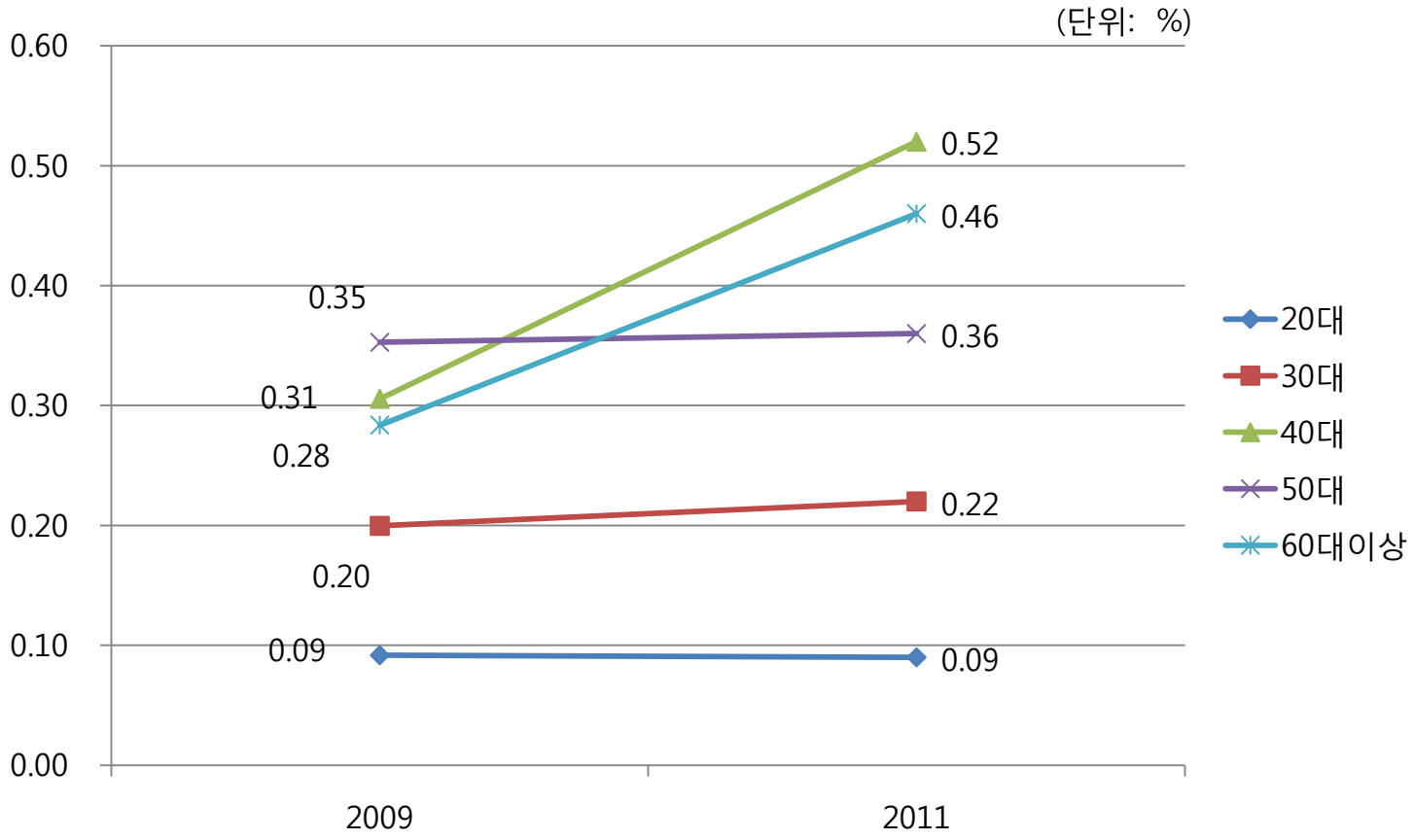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연령대 별 기부노력에 대한 분석

-기부노력의 경우에도 20대의 기부노력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40대와 60대 이상 그리고 50대의 기부노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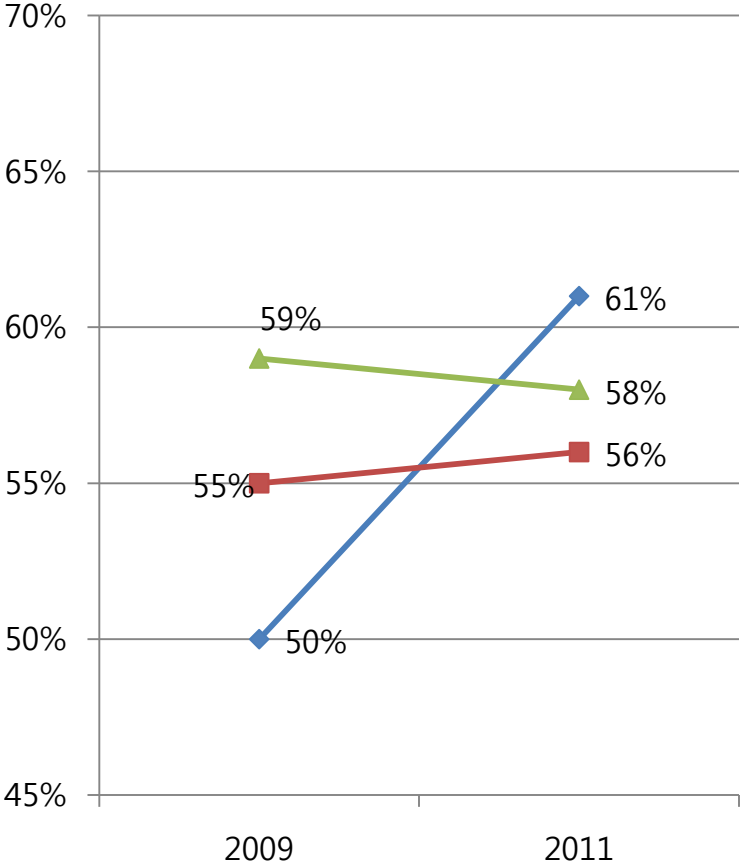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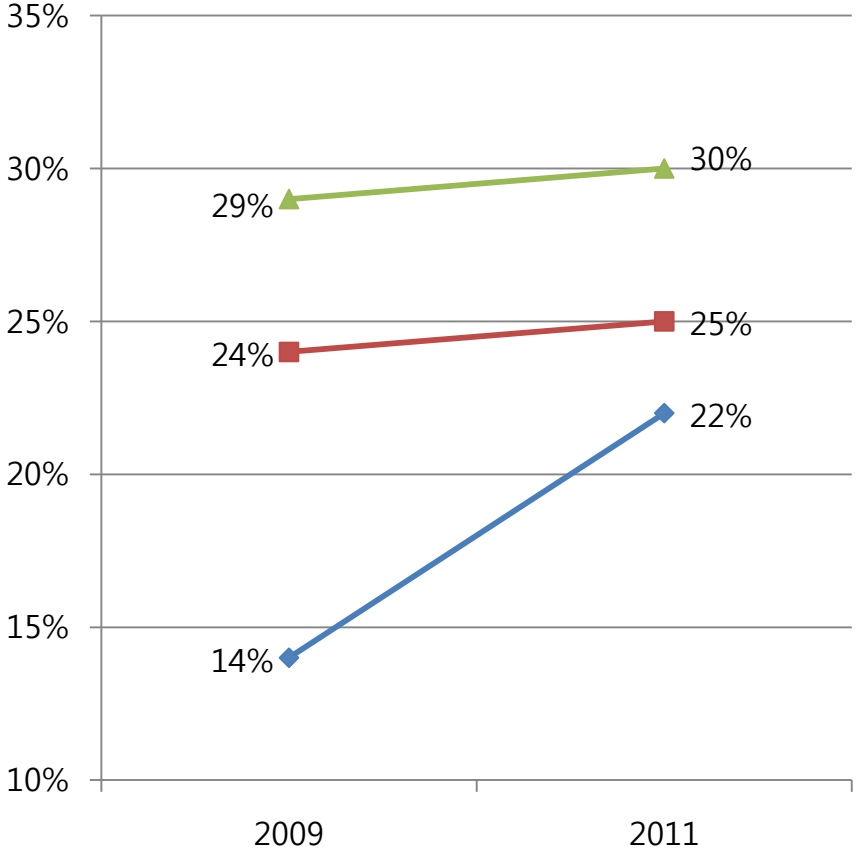
교육수준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분석

-기부 참여율에서는 중졸이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율의 경우 대재이상, 고졸, 중졸이하의 순으로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기부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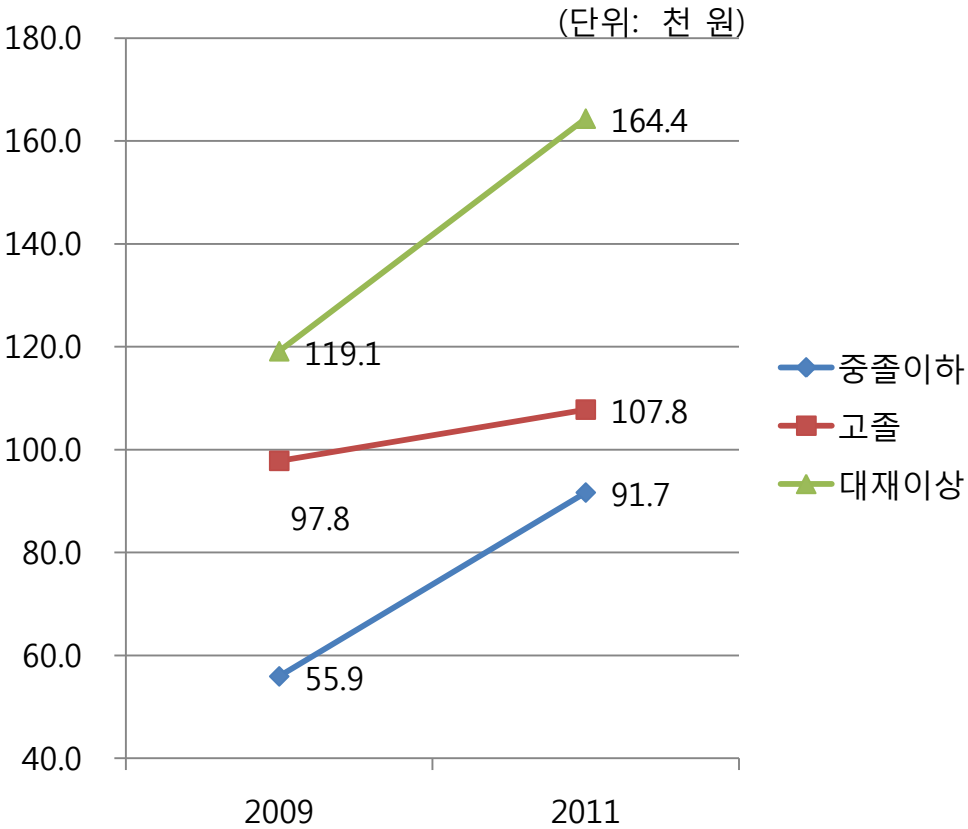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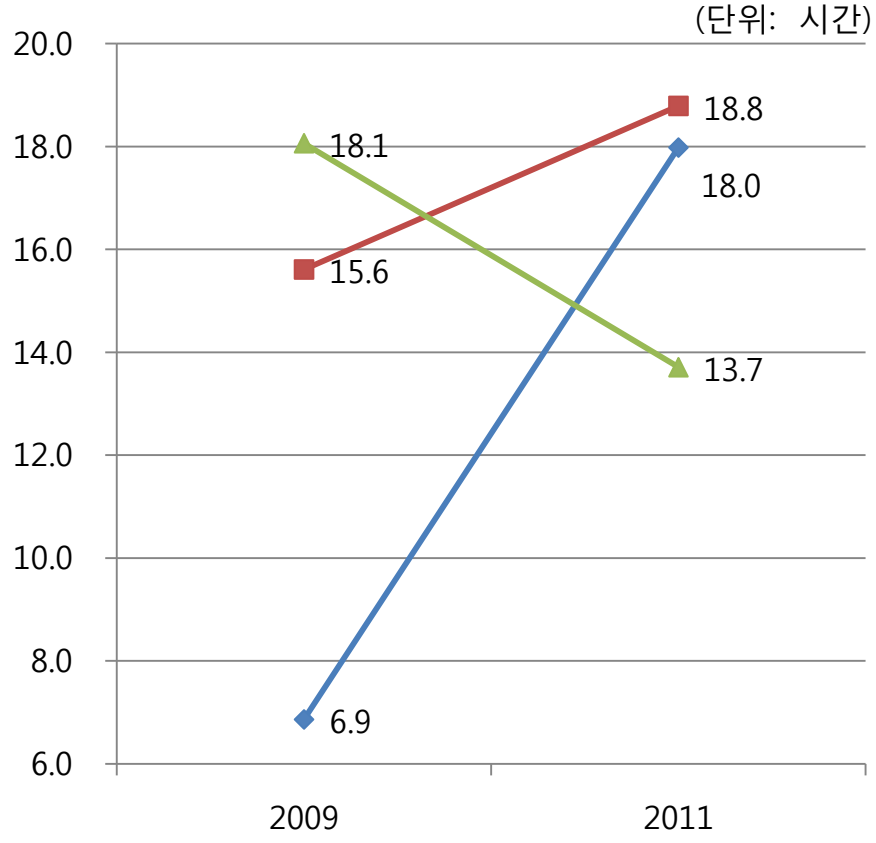
교육수준 별 기부 금액 및 자원봉사 시간 분석

-기부금액은 대재이상, 고졸, 중졸이하의 순으로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시간에서 중졸이하의 증가와 대재이상의 시간 저하가 나타남

기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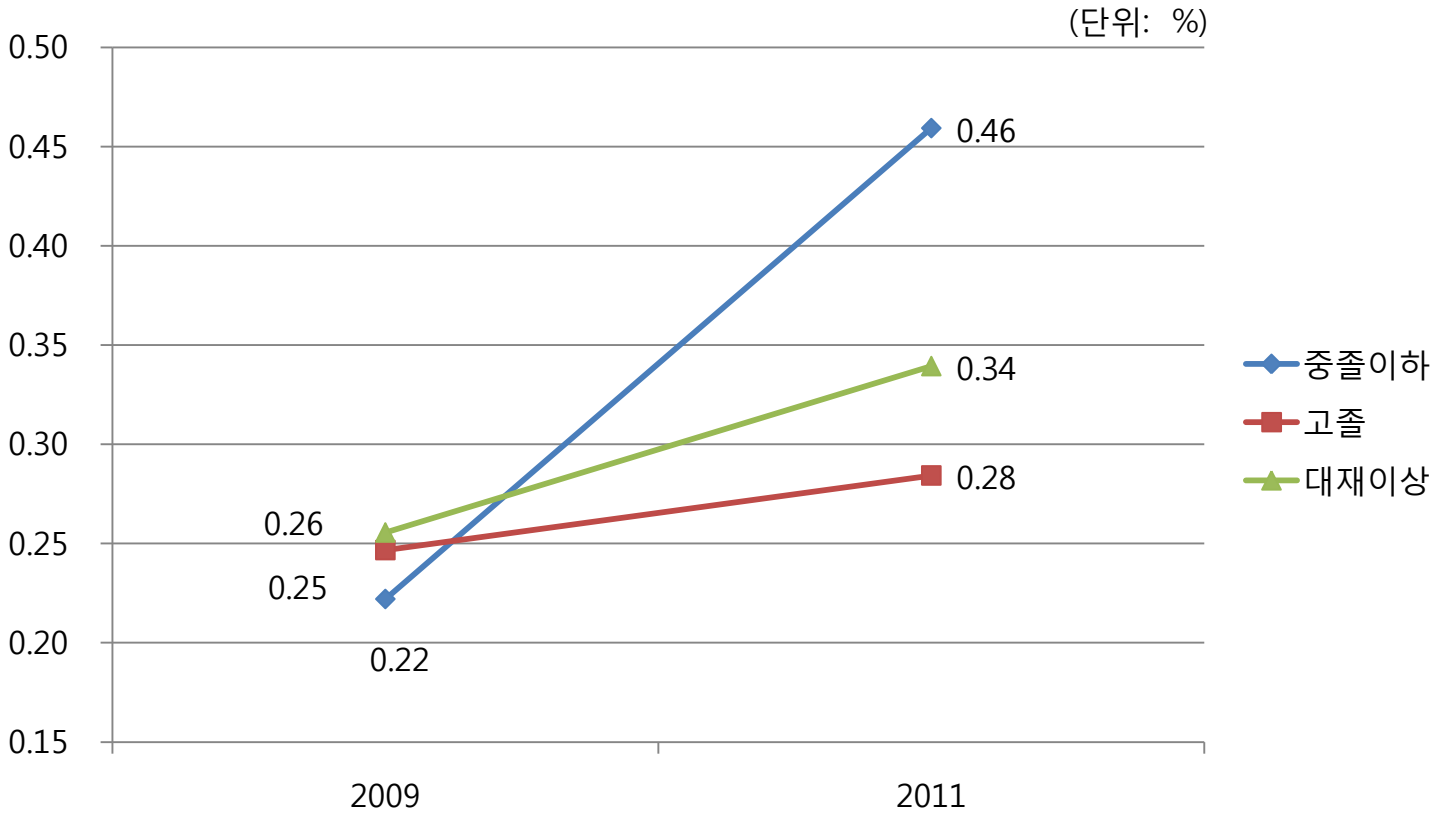
자원봉사 시간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교육수준 별 기부노력에 대한 분석

-기부노력의 경우 기부금액이 가장 낮았던 중졸이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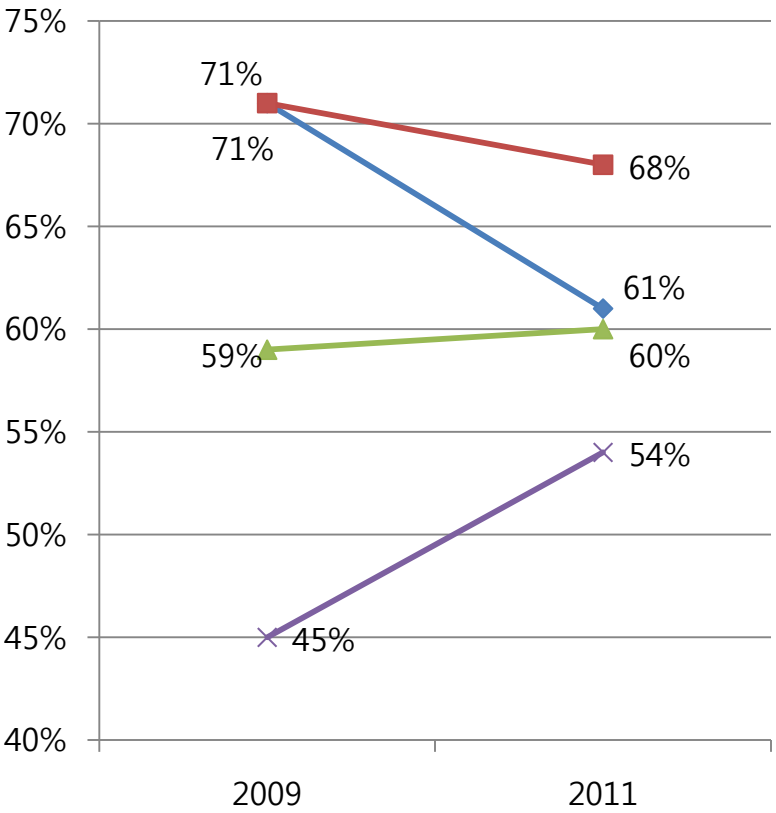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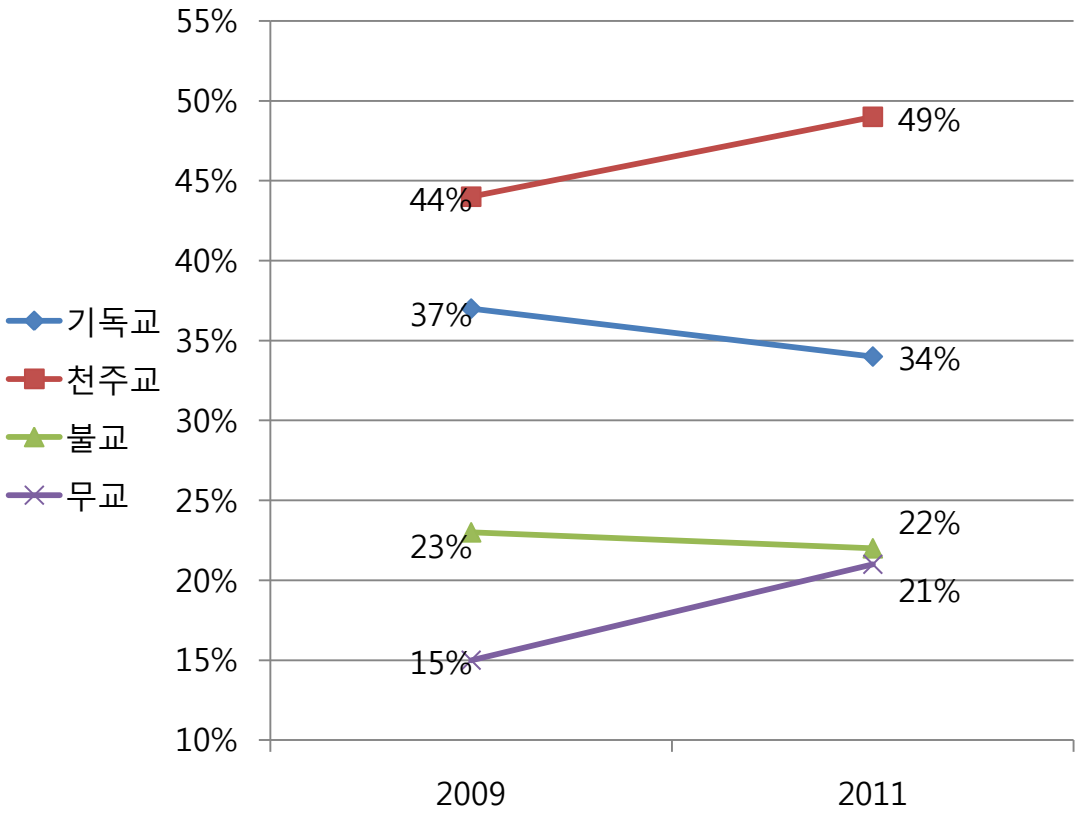
종교 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분석

-천주교와 기독교를 갖는 시민의 기부 참여가 높고, 종교가 없는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율도 역시 천주교와 기독교를 갖는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가 높고, 종교가 없는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천주교, 기독교, 불교, 무교 순으로 일관적으로 나타남

기부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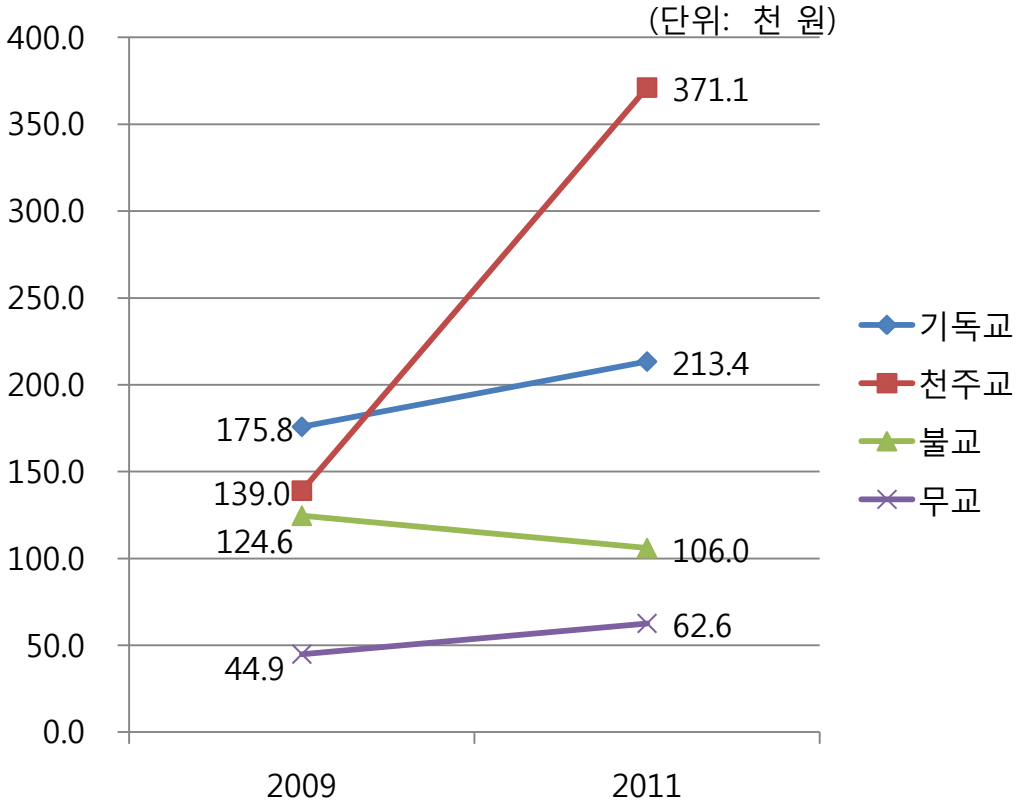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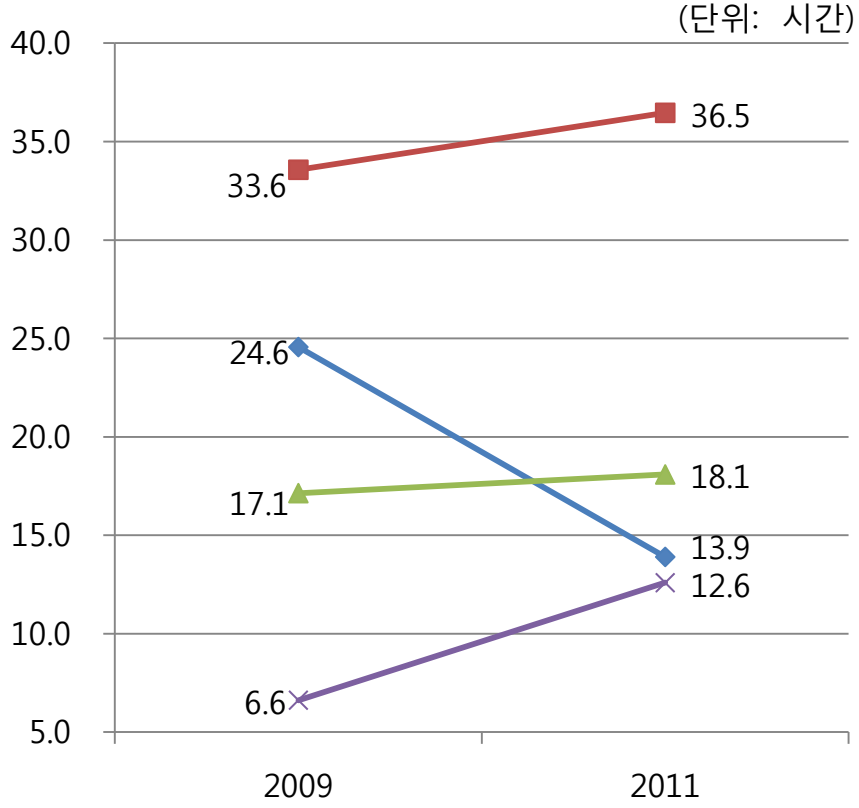
종교 별 기부금액 및 자원봉사 시간분석

-기부금액은 천주교가 가장 높고, 증가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독교, 불교, 무교 순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시간의 경우 천주교의 자원봉사 시간이 일관적으로 가장 높고, 무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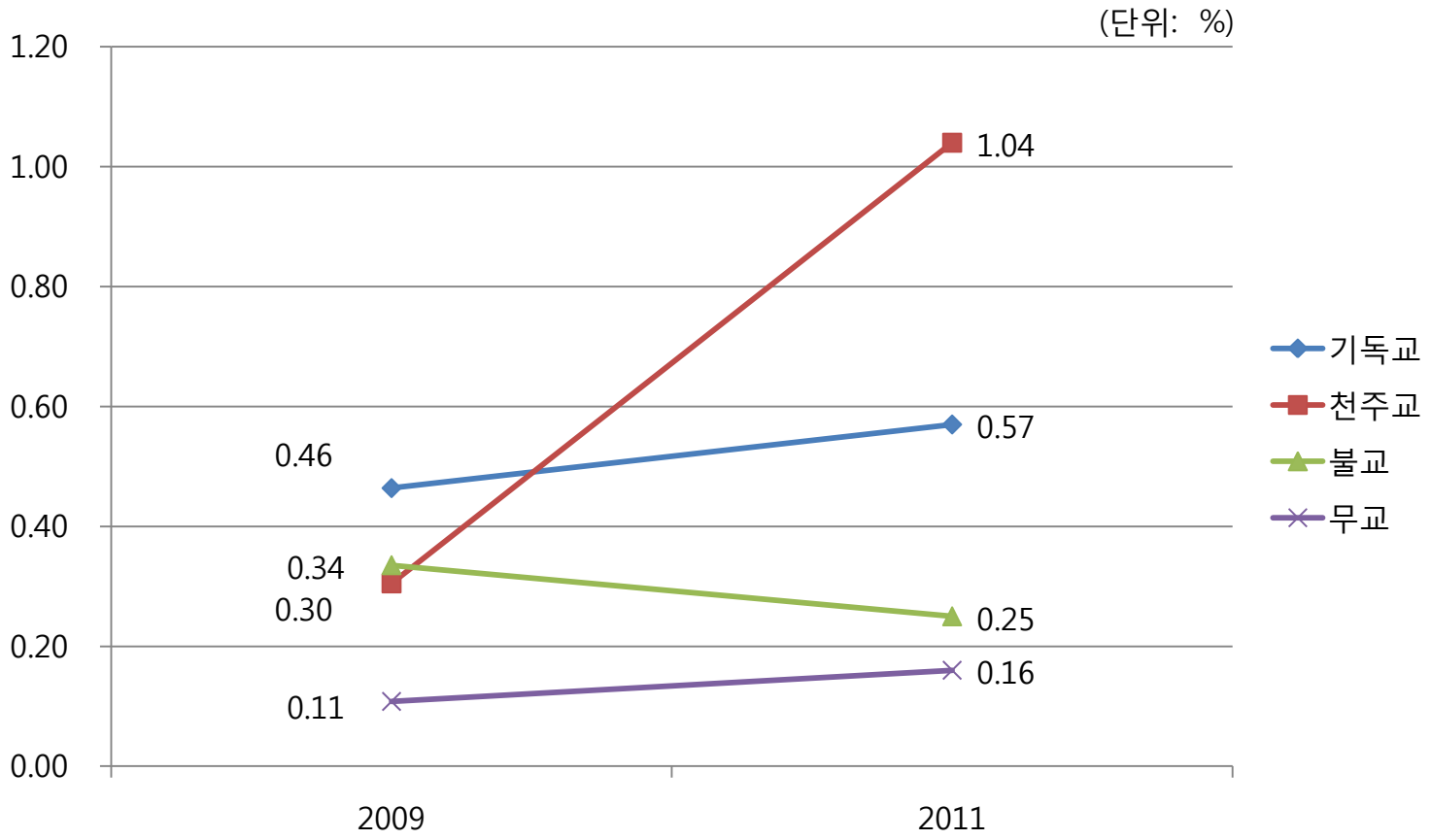
자원봉사 시간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종교 별 기부노력에 대한 분석

-기부노력은 기부금액과 마찬가지로 천주교가 가장 높고, 그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독교인 것으로 나타남. 불교와 무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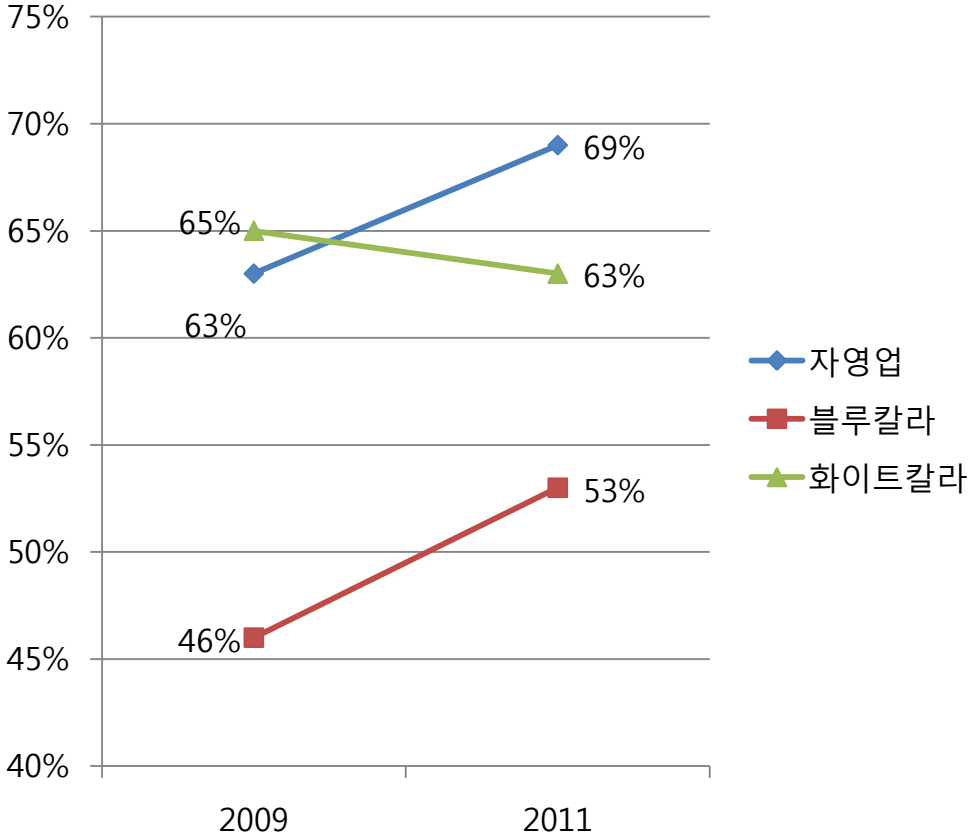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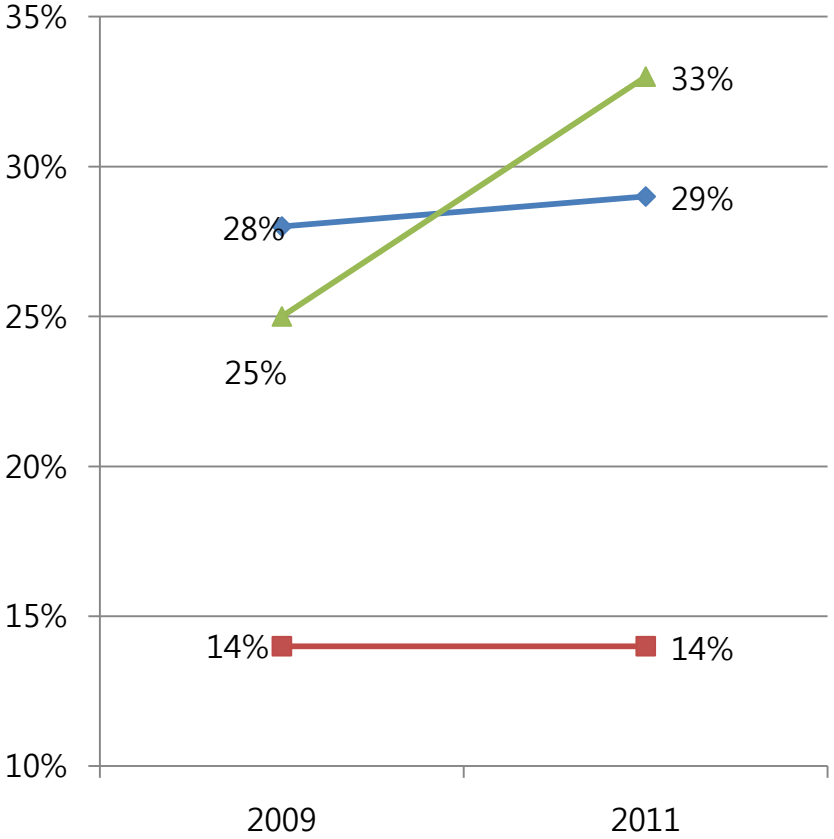
직업군 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분석

-자영업과 화이트칼라 직업 시민의 기부 참여가 높고, 블루칼라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율의 경우도 기부 참여율과 유사한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즉 자영업과 화이트칼라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가 높고 블루칼라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부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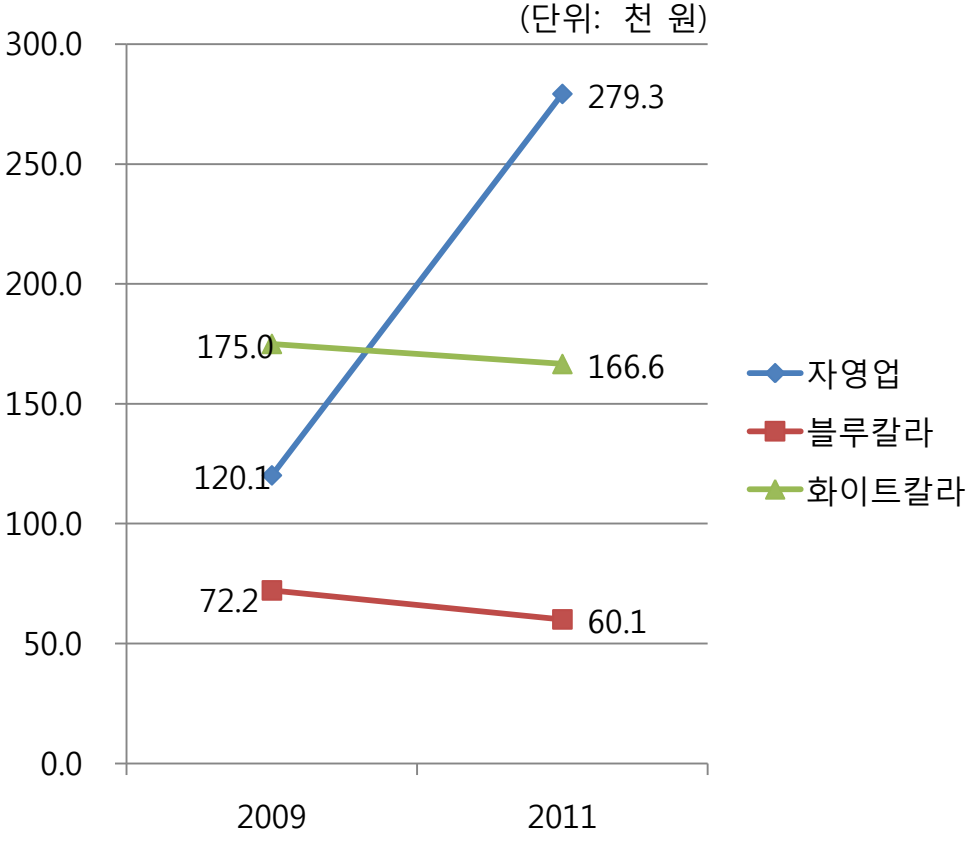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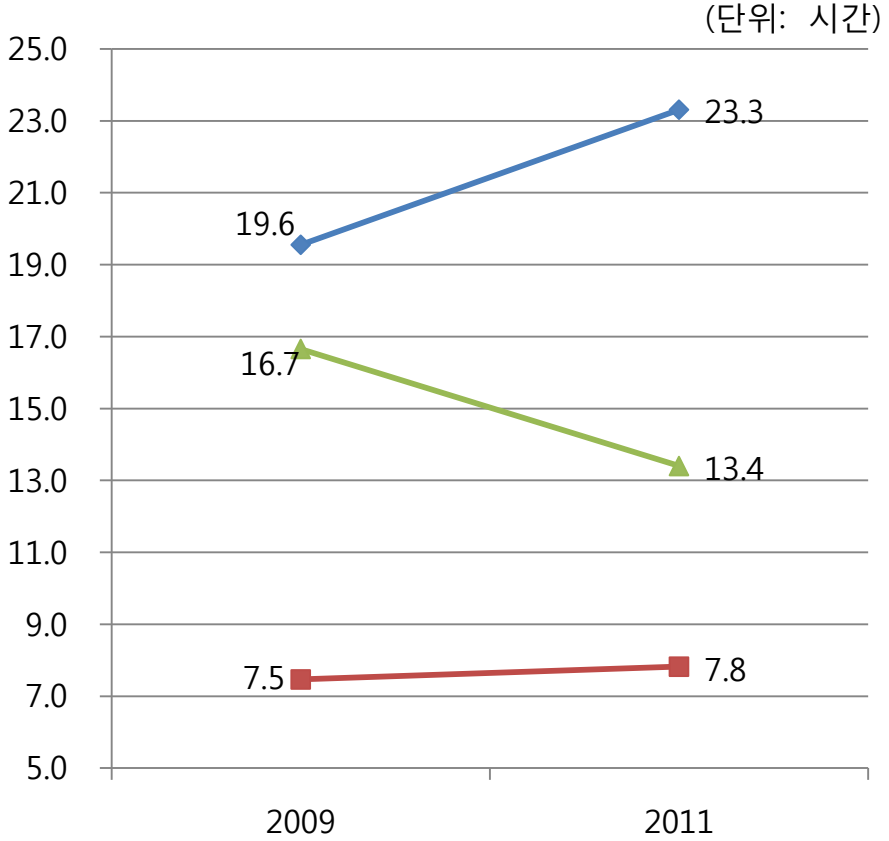
직업군 별 기부금액 및 자원봉사 시간 분석

-자영업과 화이트칼라 직업 시민의 기부금액이 높고 블루칼라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시간의 경우, 자영업, 화이트칼라, 블루칼라의 순으로 일관되게 나타남. 즉 자영업의 자원봉사 시간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고, 블루칼라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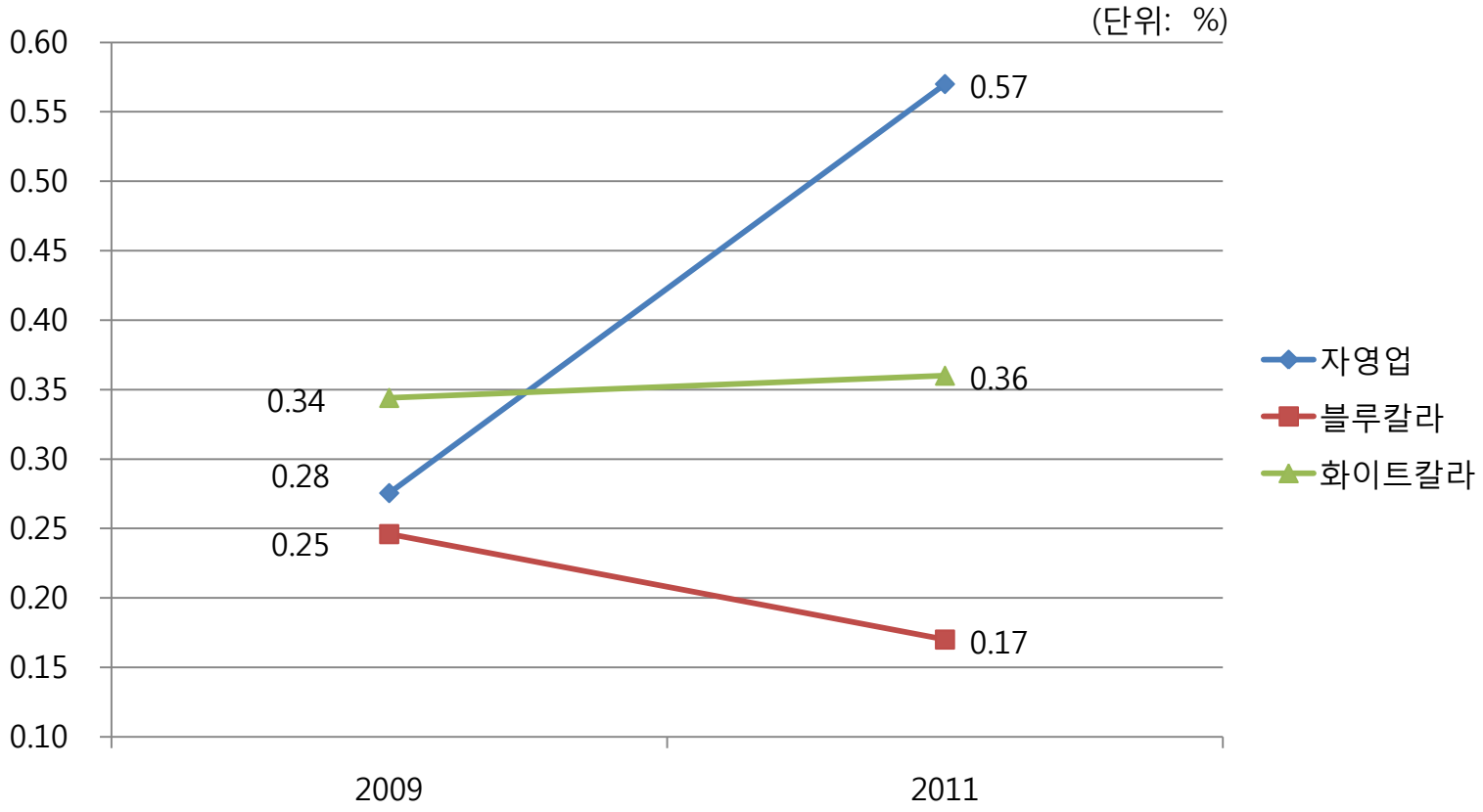
자원봉사 시간



II. Social Stratification과 기부 및 자원봉사

직업군 별 기부노력에 대한 분석

-기부노력의 경우 역시 자영업과 화이트칼라 직업을 갖는 시민의 기부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화이트칼라 직업의 경우 기부노력 수준이 높아지는데 반해, 블루칼라의 경우 많이 낮아짐.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 기부 및 자원봉사 결정요인 추정
  - Giving Korea 2010과 비교
- 종교성과 기부 및 자원봉사의 관계 – Brooks 연구와 비교
- 종교성과 이념성향의 영향력 추정 – Brooks 연구와 비교
- 종교성 및 이념성향 조합과 기부 및 자원봉사의 관계
  – Brooks 연구와 비교
- 기부 및 자원봉사 결정요인 종합 모형 추정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

기부참여율	연간 Secular giving 참여 여부
자원봉사참여율	연간 Secular volunteering 참여 여부
기부금액	연간 Secular giving 총 금액(현금+현물. 단위 : 천원)
자원봉사시간	연간 Secular volunteering 총 시간(단위 : 시간)

참여율 예측값 공식

$$Pr(y_i = 1) = \Phi(x_i \beta)$$

금액 또는 시간 예측값 공식

$$E(y_i \mid x_i, y_i > 0) = \left(X_i\beta + \delta \frac{\Phi(X_i\beta/\delta)}{\phi(X_i\beta/\delta)} \right)$$

비교 자료 설명

❖ 사회계층별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 분석(2010)

- 연구자: 민인식 교수, 강철희 교수
- 내용: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probit, tobit)
  소득, 연령대, 교육수준, 종교, 직업군별 분석
- Data Source: Giving Korea 2010

❖WHO REALLY CARES(2006)

- 연구자: Arthur C. Brooks (전 시라큐스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현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회장)
- 내용: 종교성, 이념성향과 기부 및 자원봉사의 관계
  (probit, tobit)
- Data Source: The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2000)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기부참여율 추정(Giving Korea 2010과의 비교)

기부참여율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간가구소득(log)	+	○	+	×
결혼 (유배우=1, 무배우=0)	+	×	+	○
거주지 (ref. 중소도시_읍면)	+	×		
중소도시_동			-	○
대도시			-	○
직업군 (ref. 무직)	-	○		
농·임·어업			+	○
자영업			+	○
판매·영업·서비스직			+	○
생산·기능·노무직			+	×
사무·관리·전문직			+	○
주부			+	○
학생			+	×
종교 (ref. 종교없음)	+	○		
기독교			+	×
천주교			+	○
불교			+	×
기타			+	×

기부참여율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령	+	○	+	○
성별 (남=1, 여=0)	-	×	-	○
가구원수	-	×	-	×
교육수준 (ref. 중졸이하)	+	○		
고졸			-	×
대재이상			+	×

- 2009년/2011년 공통 결정요인(p<.1)
  - 직업, 종교, 연령
- 2011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p<.1)
  - 결혼상태, 거주지, 성별
- 2009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
  - 연간가구소득, 교육수준
  - 이는 우리 사회의 기부 참여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해석됨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기부금액 추정(Giving Korea 2010과의 비교)

기부금액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간가구소득(log)	+	○	+	○
결혼 (유배우=1, 무배우=0)	+	×	+	○
거주지 (ref. 중소도시_읍면)	+	○		
중소도시_동			-	×
대도시			-	○
직업군 (ref. 무직)	+	○		
농·임·어업			+	×
자영업			+	○
판매·영업·서비스직			+	×
생산·기능·노무직			+	×
사무·관리·전문직			+	○
주부			+	×
학생			+	×
종교 (ref. 종교없음)	+	○		
기독교			+	○
천주교			+	○
불교			+	×
기타			+	×

기부금액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령	+	○	+	○
성별 (남=1, 여=0)	+	×	-	○
가구원수	+	×	-	×
교육수준 (ref. 중졸이하)	+	○		
고졸			+	×
대재이상			+	○

- 2009년/2011년 공통 결정요인(p<.1)
  - 연간가구소득, 거주지, 직업, 종교, 연령, 교육수준
- 2011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p<.1)
  - 결혼상태, 성별
- 2009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 (p<.1)
  - 없음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자원봉사 참여율 추정(Giving Korea 2010과의 비교)

자원봉사 참여율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간가구소득(log)	+	○	+	×
결혼 (유배우=1, 무배우=0)	+	×	+	×
거주지 (ref. 중소도시_읍면)	-	○		
중소도시_동			-	×
대도시			-	×
직업군 (ref. 무직)	-	○		
농·임·어업			+	○
자영업			+	×
판매·영업·서비스직			+	×
생산·기능·노무직			-	×
사무·관리·전문직			+	○
주부			+	○
학생			+	○
종교 (ref. 종교없음)	+	○		
기독교			+	○
천주교			+	○
불교			+	×
기타			+	○

자원봉사 참여율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령	+	○	+	○
성별 (남=1, 여=0)	-	×	-	×
가구원수	-	×	+	○
교육수준 (ref. 중졸이하)	+	○		
고졸			+	×
대재이상			+	×

- 2009년/2011년 공통 결정요인(p<.1)
  - 직업, 종교, 연령
- 2011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p<.1)
  - 가구원수
- 2009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p<.1)
  - 연간가구소득, 거주지, 교육수준
  - 이 역시도 우리 사회에서의 자원봉사 참여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해석됨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자원봉사시간 추정(Giving Korea 2010과의 비교)

자원봉사시간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간가구소득(log)	+	○	+	×
결혼 (유배우=1, 무배우=0)	-	×	+	×
거주지 (ref. 중소도시_읍면)	-	○		
중소도시_동			-	×
대도시			+	×
직업군 (ref. 무직)	-	○		
농·임·어업			+	○
자영업			+	×
판매·영업·서비스직			+	×
생산·기능·노무직			-	×
사무·관리·전문직			+	○
주부			+	×
학생			+	○
종교 (ref. 종교없음)	+	○		
기독교			+	○
천주교			+	○
불교			+	×
기타			+	×

자원봉사시간	2009년		2011년	
	부호	유의	부호	유의
연령	+	○	+	○
성별 (남=1, 여=0)	+	×	-	×
가구원수	+	×	+	○
교육수준 (ref. 중졸이하)	+	○		
고졸			+	○
대재이상			+	×

- 2009년/2011년 공통 결정요인(p<.1)
  - 직업, 종교, 교육수준
- 2011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p<.1)
  - 가구원수
- 2009년에만 유의한 결정요인(p<.1)
  - 연간가구소득, 거주지, 연령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과 기부 및 자원봉사의 관계(Brooks, 2006과의 비교)

- 종교적 성향이 강한 경우, 세속적 성향이 강한 경우에 비해 기부 참여율, 기부 금액, 기부 노력,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이 모두 높게 나타남(미국, 한국 모두)
- 특히 한국의 경우 기부 금액과 기부 노력은 종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세속적 성향이 강한 사람에 비해 5~6배 정도 높음
- 이런 결과는 종교적 성향이 사람들의 나눔 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

	SCCBS(2000)		Giving Korea(2012)	
	종교적 성향[1)]	세속적 성향[2)]	종교적 성향[3)]	세속적 성향[4)]
연간 기부참여율 (secular)	71%	61%	76.7%	51.8%
연간 기부금액 (secular)	$532	$467	₩316,697	₩62,689
연간 기부노력 (secular)	-	-	0.89%	0.15%
연간 자원봉사 참여율 (secular)	60%	39%	44.8%	21.0%
연간 자원봉사시간 (secular)	-	-	28.1시간	13.5시간

1) 1주일에 1번 이상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2) 1년에 몇 번 정도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

3)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람

4)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과 기부 및 자원봉사의 관계(Giving Korea 2012)

-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Secular 기부와 관련해서 종교성의 강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종교적 > 중립적 > 세속적 순서로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기부노력, 자원봉사 참여율이 일관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런 결과는 시민 중 종교성의 정도가 나눔 행동과 정적인 방향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자원봉사시간의 경우, 중립적인 경우와 세속적인 경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Giving Korea(2012)		
	종교적 성향[1)]	중립적 성향[2)]	세속적 성향[3)]
연간 기부참여율 (secular)	76.7%	54.8%	51.8%
연간 기부금액 (secular)	₩316,697	₩132,227	₩62,689
연간 기부노력 (secular)	0.89%	0.31%	0.16%
연간 자원봉사 참여율 (secular)	44.8%	24.5%	21.0%
연간 자원봉사시간 (secular)	28.05시간	13.24시간	13.49시간

1)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람

2)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소극적 또는 보통 정도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람

3)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과 이념성향의 영향력 추정-기부참여율(Brooks, 2006과의 비교)

기부참여율	SCCBS(2000)	Giving Korea(2012)	
	Coef.(Secu+Relig)	Coef.(Secu+Relig)	Coef.(Secular)
종교적[1)]	0.384**	0.746**	.640**
세속적[1)]	-0.656**	-0.787**	-.010
성별[2)]	-0.053	-0.238*	-.121
결혼상태[3)]	0.103**	0.375**	.352**
가구원수	0.0018	-.093*	-.068*
연령	0.0074**	.011*	.009*
연간가구소득	0.0108**	.214*	.214*
고졸[4)]	0.447**	-.058	.009
대졸[4)]	0.788**	.134	.196
대학원재 이상[4)]	0.929**	.134	.057
백인[5)]	0.285**	-	–
흑인[5)]	0.14**	-	–
보수[6)]	0.024	-.020	-.208*
진보[6)]	0.059	.111	.073
Constant	-0.493**	-1.151	-2.037**

* *p<.01 *p<.05
1) ref. 중도적 성향 2) 남=1, 여=0 3) 유배우=1, 무배우=0 4) ref. 중졸이하
5) ref. 흑인 외 유색인종 6) ref. 중도

❖ Secular + Religious 기부

- 미국과 한국 모두 종교적 성향은 기부참여율에 정적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짐
- 미국과 한국 모두 세속적 성향은 기부참여율에 부적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짐
-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이념성향 자체만으로는 포괄적 기부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Secular 기부

- 한국의 경우, secular 기부참여에 있어서 종교적 성향이 강한 경우(+) 그리고 보수적인 경우(-)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과 이념성향의 영향력 추정-기부금액(Brooks, 2006과의 비교)

기부금액	SCCBS(2000)	Giving Korea(2012)	
	Coef.(Secu+Relig)	Coef.(Secu+Relig)	Coef.(Secular)
종교적[1)]	1,130.4**	1038.044**	332.769**
세속적[1)]	-761.311**	-677.500**	-71.871
성별[2)]	192.621**	27.104	-68.275
결혼상태[3)]	168.617**	472.464**	165.614**
가구원수	21.6851	-42.766	-18.632
연령	15.8724**	6.796	5.076*
연간가구소득	26.3097**	277.800**	143.780**
고졸[4)]	554.594**	13.829	75.249
대졸[4)]	991.475**	294.556*	165.845*
대학원재 이상[4)]	1,313.74**	346.306	165.738
백인[5)]	442.544**	-	–
흑인[5)]	513.696**	-	–
보수[6)]	271.631**	-28.714	-88.518
진보[6)]	127.631**	-44.163	28.3549
Constant	-2,506.22*	-2562.341**	-1631.68**

* *p<.01 *p<.05
1) ref. 중도적 성향 2) 남=1, 여=0 3) 유배우=1, 무배우=0 4) ref. 중졸이하
5) ref. 흑인 외 유색인종 6) ref. 중도

❖ Secular + Religious 기부

-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종교적 성향은 기부금액에 정적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짐
-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세속적 성향은 기부금액에 부적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짐
- 미국에서 이념성향의 경우 보수와 진보 모두 중도에 비해서는 기부금액에 정적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짐
- 한국의 경우 보수와 진보 모두 기부금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 Secular 기부

- 한국의 Secular 기부금액에 있어 종교적 성향은 이에 정적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과 이념성향의 Secular 기부 영향력 종합(Giving Korea 2012)

	기부참여율(secu)	기부금액(secu)	기부노력(secu)
종교성(연속)[1]	0.169***	113.184***	0.343***
성별[2]	-0.107	-61.612	-0.216
결혼상태[3]	0.323***	156.219***	0.271
가구원수	-0.062	-16.499	-0.042
연령	0.008**	4.790**	0.012*
연간가구소득	0.200**	137.089***	0.025
고졸[4]	-0.004	71.485	0.103
대졸[4]	0.190	160.918*	0.389
대학원재 이상[4]	0.075	184.184	0.203
이념성향(연속)[5]	0.043*	16.230	0.029
종교성×이념성향	0.027*	9.536	0.013
_cons	-2.408***	-1879.625***	-2.172*

*p<.1 **p<.05 *** p<.01

1) 값이 클수록 종교적 성향이 강함 2) 남=1, 여=0
3) 유배우=1, 무배우=0 4) ref. 중졸이하 5) 값이 클수록 보다 진보적임

- Secular 기부에 대한 분석
- 종교성과 이념성향, 그리고 종교성과 이념성향의 상호작용이 기부참여율에 정적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침
- 이는 종교적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이념성향이 보다 진보적일수록 기부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냄. 아울러서 종교적 성향과 이념의 결합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냄
- 그러나, 기부금액과 기부노력에 있어서는 종교성만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기부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역시 종교성이 중요함을 보여줌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 및 이념 성향의 조합과 기부의 관계(Brooks, 2006과의 비교)

	SCCBS(2000)			
	Giving Korea(2012)			
	종교적 보수[1)5)]	종교적 진보[2)6)]	세속적 보수[3)7)]	세속적 진보[4)8)]
표본에서의 %	19.1%	6.4%	7.3%	10.5%
	7.0%(72)	5.1%(52)	16.6%(170)	15.4%(152)
기부참여율 (Secu+Relig)	91%	91%	63%	72%
	95.8%	98.1%	57.3%	53.8%
기부금액 (Secu+Relig)	$2,367	$2,123	$661	$741
	₩1,260,476	₩1,129,912	₩327,356	₩429,334
기부참여율 (Secu)	71%	72%	55%	69%
	70.8%	84.9%	53.8%	50.6%
기부금액 (Secu)	-	-	-	-
	₩215,310	₩337,829	₩49,611	₩78,389
기부노력 (Secu)	-	-	-	-
	0.66%	0.72%	0.13%	0.16%

1) 1주일에 1번 이상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면서 보수적인 사람
2) 1주일에 1번 이상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면서 진보적인 사람
3) 1년에 몇 번 정도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보수적인 사람
4) 1년에 몇 번 정도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진보적인 사람
5)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1~4점인 사람
6)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7~10점인 사람
7)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1~4점인 사람
8)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7~10점인 사람

❖ Secular + Religious 기부

- 미국의 경우 포괄적 기부에 있어 종교적 보수인 경우가 참여율이 가장 높고, 금액도 가장 높음
- 한국의 경우 포괄적 기부에 있어 종교적 진보인 경우가 참여율이 가장 높지만, 금액은 종교적 보수가 가장 높음

❖ Secular 기부

- 미국은 Secular 기부에 있어 종교적 보수와 종교적 진보가 유사한 참여율을 보임
- 한국은 Secular 기부에 있어 종교적 진보가 가장 높은 기부 참여율, 가장 높은 기부 금액, 가장 높은 기부 노력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 및 이념 성향의 조합과 기부의 관계(Giving Korea 2012)

❖ 한국의 Secular 기부 관련 종교성과 이념성향의 결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 종교적 진보의 기부참여율, 종교적 중도의 기부금액 및 기부노력이 가장 높음
- 반면 중립적 보수의 기부참여율, 세속적 보수의 기부금액 및 기부노력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종교적 > 중립적 > 세속적 순서로 기부행동에서 보다 적극적이며, 보수보다는 중도와 진보가 기부행동에 보다 적극적인 편인 것으로 나타남

	Giving Korea(2012)								
	종교적 보수[1]	종교적 중도[2]	종교적 진보[3]	중립적 보수[4]	중립적 중도[5]	중립적 진보[6]	세속적 보수[7]	세속적 중도[8]	세속적 진보[9]
표본에서의 %	7.0%(72)	7.5%(78)	5.1%(53)	8.7%(90)	9.6%(99)	5.9%(61)	16.6%(171)	24.1%(248)	15.4%(158)
기부참여율 (Secu)	70.8%	76.6%	84.9%	42.2%	62.2%	61.7%	53.8%	51.2%	50.6%
기부금액 (Secu)	₩215,310	₩396,887	₩337,829	₩141,342	₩103,343	₩165,799	₩49,611	₩61,693	₩78,389
기부노력 (Secu)	0.66%	1.23%	0.72%	0.40%	0.22%	0.31%	0.13%	0.18%	0.16%

1)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1~4점인 사람
2)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5~6점인 사람
3)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7~10점인 사람
4)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소극적 또는 보통 정도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1~4점인 사람
5)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소극적 또는 보통 정도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5~6점인 사람
6)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소극적 또는 보통 정도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7~10점인 사람
7)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1~4점인 사람
8)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5~6점인 사람
9)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7~10점인 사람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 및 이념 성향의 조합과 자원봉사의 관계(Brooks, 2006과의 비교)

	SCCBS(2000)			
	Giving Korea(2012)			
	종교적 보수[1)5)]	종교적 진보[2)6)]	세속적 보수[3)7)]	세속적 진보[4)8)]
표본에서의 %	19.1%	6.4%	7.3%	10.5%
	7.0%(72)	5.1%(52)	16.6%(170)	15.4%(152)
자원봉사 참여율 (Secu+Relig)	67%	67%	37%	52%
	56.9%	56.6%	17.5%	21.5%
자원봉사시간 (Secu+Relig)	-	-	-	-
	54.13시간	54.09시간	10.15시간	14.09시간
자원봉사 참여율 (Secu)	60%	63%	31%	47%
	40.3%	43.4%	17.5%	20.9%
자원봉사시간 (Secu)	-	-	-	-
	26.67시간	28.27시간	10.09시간	13.94시간

1) 1주일에 1번 이상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면서 보수적인 사람
2) 1주일에 1번 이상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면서 진보적인 사람
3) 1년에 몇 번 정도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보수적인 사람
4) 1년에 몇 번 정도 종교적 예배에 참여하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진보적인 사람
5)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1~4점인 사람
6)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7~10점인 사람
7)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1~4점인 사람
8)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7~10점인 사람

❖ Secular + Religious 자원봉사

- 미국은 포괄적 자원봉사에 있어 종교적 보수와 종교적 진보의 참여율이 유사하게 가장 높음. 세속적 진보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수준이나, 세속적 보수의 경우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 한국 역시 포괄적 자원봉사에 있어 종교적 보수와 종교적 진보의 참여율과 시간이 유사하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Secular 자원봉사

- 미국은 Secular 자원봉사에 있어 종교적 진보와 종교적 보수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냄
- 한국 역시 Secular 자원봉사에 있어 종교적 진보와 종교적 보수가 가장 높은 참여율과 시간을 보임
- 즉 두 나라 모두에서 종교적 진보와 종교적 보수가 유사한 수준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종교성 및 이념 성향의 조합과 자원봉사의 관계(Giving Korea 2012)

❖ 한국의 Secular 자원봉사 관련 종교성과 이념성향의 결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 종교적 중도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자원봉사시간이 가장 높음
- 아울러 세속적 보수의 자원봉사 참여율, 중립적 진보의 순으로 자원봉사시간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는 종교적 > 중립적 > 세속적 순서로 자원봉사행동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자원봉사시간에 있어서는 세속과 중립의 경우에 유사함이 관찰됨
- 보수와 중도 및 진보만을 고려하면, 일관적인 패턴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Giving Korea(2012)								
	종교적 보수[1]	종교적 중도[2]	종교적 진보[3]	중립적 보수[4]	중립적 중도[5]	중립적 진보[6]	세속적 보수[7]	세속적 중도[8]	세속적 진보[9]
표본에서의 %	7.0%(72)	7.5%(78)	5.1%(53)	8.7%(90)	9.6%(99)	5.9%(61)	16.6%(171)	24.1%(248)	15.4%(158)
자원봉사 참여율 (Secu)	40.3%	50.0%	43.4%	23.3%	22.2%	29.5%	17.5%	23.4%	20.9%
자원봉사시간 (Secu)	26.67시간	29.19시간	28.27시간	18.90시간	10.85시간	8.75시간	10.09시간	15.55시간	13.94시간

1)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1~4점인 사람
2)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5~6점인 사람
3)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7~10점인 사람
4)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소극적 또는 보통 정도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1~4점인 사람
5)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소극적 또는 보통 정도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5~6점인 사람
6)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소극적 또는 보통 정도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7~10점인 사람
7)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1~4점인 사람
8)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5~6점인 사람
9)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으면서, 이념성향 점수가 7~10점인 사람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기부참여와 기부금액 및 기부노력 결정요인 추정(Full Model)

- 종교적 보수/중도/진보, 중립적 중도/진보는 (세속적 보수에 비해) 기부참여에 정적 영향
- 종교적 보수/중도/진보는 (세속적 보수에 비해) 기부금액 및 기부노력에 정적 영향
- 직업, 종교,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나눔교육, 사회적 신뢰(비영리집단), 자원봉사 여부도 영향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기부노력
종교적 보수[1)]	0.620**	274.009**	0.899**
종교적 중도[1)]	0.314**	208.055***	0.679***
종교적 진보[1)]	0.421***	151.484***	0.365**
중립적 보수[1)]	-0.031	22.427	0.085
중립적 중도[1)]	0.104**	34.176	0.105
중립적 진보[1)]	0.079*	32.017	0.089
세속적 중도[1)]	0.002	1.378	0.002
세속적 진보[1)]	0.009	3.990	0.010
농·임·어업[2)]	0.378	55.472	0.391
자영업[2)]	0.554**	350.741***	1.065***
판매·영업·서비스직[2)]	0.429*	147.513	0.705*
생산·기능·노무직[2)]	0.296	107.319	0.438
사무·관리·전문직[2)]	0.470**	158.507	0.689*
주부[2)]	0.241	129.717	0.614
학생[2)]	-0.274	-163.182	-0.424
기독교[3)]	-0.550***	-139.679	-0.450
천주교[3)]	-0.377	-1.957	0.028
불교[3)]	-0.351*	-180.238*	-0.624*
기타 종교[3)]	-0.171	-141.032	-0.450
연간가구소득(log)	0.154	91.453*	-0.116

*p<.1 **p<.05 *** p<.01 1) ref. 세속적 보수 2) ref. 무직 3) ref. 종교없음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기부노력
가구원수	-0.079*	-19.215	-0.066
연령	0.010*	6.007**	0.014
성별[4)]	-0.107	-63.776	-0.146
결혼상태[5)]	0.300**	116.218*	0.106
고졸[6)]	-0.060	18.198	-0.031
대재 이상[6)]	-0.008	109.441	0.133
중소도시_동[7)]	-0.342**	-106.330	-0.196
대도시[7)]	-0.315**	-126.723**	-0.315
나눔교육_사회교육	-0.114	58.213	0.156
나눔교육_부모교육	0.017	-52.685	-0.170
나눔교육_실천관찰	0.196*	54.307	0.304*
나눔교육_자발실천	0.653***	178.063***	0.446***
나눔교육_의무실천	0.006	21.565	-0.018
나눔대상거리수용도	0.054	42.040**	0.063
사회적신뢰_비영리집단	0.363***	108.481*	0.299
사회적신뢰_이익집단	-0.082	-44.730	-0.053
사회적신뢰_영리정부언론	-0.011	-28.245	0.015
자원봉사 여부[8)]	0.616***	305.173***	0.956***
_cons	-2.754***	1681.914***	-1.857

* p<.1 **p<.05 *** p<.01

4) 남=1 여=0 5) 유배우=1 무배우=0 6) ref. 중소도시 읍면

7) ref. 중졸이하 8) 자원봉사 참여=1, 자원봉사 불참여=0

III. 기부와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 추정

자원봉사 참여율 및 시간 결정요인 추정(Full Model)

- 종교적 보수/중도/진보는 (세속적 보수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율에 정적 영향
- 직업, 종교, 가구원수, 연령, 교육수준, 나눔교육, 사회적 신뢰(영리·정부·언론), 기부여부도 영향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
종교적 보수[1)]	0.515*	43.116
종교적 중도[1)]	0.247*	20.858
종교적 진보[1)]	0.191*	19.407
중립적 보수[1)]	0.065	5.893
중립적 중도[1)]	0.002	-2.605
중립적 진보[1)]	0.048	2.717
세속적 중도[1)]	0.015	0.606
세속적 진보[1)]	0.012	2.219
농·임·어업[2)]	0.934***	102.424**
자영업[2)]	0.526*	57.409*
판매·영업·서비스직[2)]	0.224	18.208
생산·기능·노무직[2)]	0.064	6.457
사무·관리·전문직[2)]	0.725**	69.318**
주부[2)]	0.533*	56.633*
학생[2)]	1.454***	155.584***
기독교[3)]	0.040	-0.926
천주교[3)]	0.569**	60.372**
불교[3)]	-0.197	-12.354
기타 종교[3)]	0.668	50.943
연간가구소득(log)	-0.034	2.127

*p<.1 **p<.05 *** p<.01
1) ref. 세속적 보수 2) ref. 무직 3) ref. 종교없음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
가구원수	0.115**	12.449**
연령	0.011*	1.970***
성별[4)]	0.086	-4.683
결혼상태[5)]	0.024	-0.176
고졸[6)]	0.304*	50.817**
대재 이상[6)]	0.158	26.695
중소도시_동[7)]	-0.212	-11.149
대도시[7)]	-0.172	7.142
나눔교육_사회교육	0.010	-8.109
나눔교육_부모교육	0.132	31.961**
나눔교육_실천관찰	-0.230*	-28.528**
나눔교육_자발실천	0.469***	52.521***
나눔교육_의무실천	0.128	7.873
나눔대상거리수용도	-0.049	-9.702*
사회적신뢰_비영리집단	0.066	14.344
사회적신뢰_이익집단	-0.006	-2.120
사회적신뢰_영리정부언론	0.189*	22.924*
기부여부[8)]	0.610***	68.206***
_cons	-3.249***	-481.326***

* p<.1 **p<.05 *** p<.01
4) 남=1 여=0 5) 유배우=1 무배우=0 6) ref. 중소도시 읍면
7) ref. 중졸이하 8) 자원봉사 참여=1, 자원봉사 불참여=0

IV. 요약 및 결론

Ⅳ. 요약 및 결론: Who cares for neighbors?

- 2011년 현재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은 2009년에 비해 상승하였음
-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부와 자원봉사에 적극적임
  - 그러나, 기부에 있어 중간층인 소득수준 6분위의 하락세가,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최상층인 10분위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 기부노력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리 소득수준 하위층인 2분위와 4분위의 상승, 6분위의 하락과 10분위의 상승으로 U자형의 모습이 관찰됨
-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부와 자원봉사에 적극적임
  - 기부참여율과 기부금액은 40대와 50대가 높고, 기부노력은 40대와 60대가 높음
  - 자원봉사 참여율은 20대와 50대가, 자원봉사 시간은 50대와 60대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별 기부와 자원봉사는 일관적인지 않은 결과가 관찰됨
  - 기부참여율과 기부노력에 있어 중졸이하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기부금액에 있어서는 대재이상이 높음
  - 자원봉사 참여율은 대재이상이, 시간에 있어서는 고졸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천주교와 기독교가 기부와 자원봉사에 적극적임
  -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기부노력,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은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기부참여율에 있어 천주교와 기독교는 하락세, 불교와 무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 자영업과 화이트칼라가 기부와 자원봉사에 적극적임
  -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기부노력,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 모두 자영업과 화이트칼라가 높게 나타남
  - 특히, 자원봉사 참여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자영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Ⅳ. 요약 및 결론: Who cares for neighbors?

- 2009년과 비교하여 2011년 현재 나눔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음
  - 첫째, 2009년과 비교하여 기부참여율과 자원봉사 참여율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이 사라져 우리사회의 나눔에의 참여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2011년 현재 가구소득은 기부금액에만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연령은 2009년과 2011년에 모두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자원봉사 참여율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2009년과 비교하여 기부참여율과 자원봉사 참여율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등 우리사회 나눔에의 참여가 보편화되는 경향을 시사하고 있음
    - 다만, 교육수준은 2009년과 2011년에 모두 기부금액과 자원봉사 시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종교는 2009년과 2011년에 모두 기부 참여율, 기부금액,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천주교와 기독교를 갖는 국민의 적극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섯째, 직업은 2009년과 2011년에 모두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기부에 있어서는 자영업과 화이트칼라가,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농림어업, 화이트칼라, 학생의 적극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IV. 요약 및 결론: Who cares for neighbors?

- Brooks의 연구(2006, 미국 SCCBS 2000 data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종교성과 이념성향을 중심으로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음
  - 첫째, 미국과 한국 모두 종교적 성향이 강한 경우 세속적 성향이 강한 경우에 비해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기부노력,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시간이 모두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종교적 성향이 나눔행동과 정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한국의 기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종교적 > 중립적 > 세속적 순서로 나눔 행동에 보다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음
  - 둘째,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종교성이 포괄적 기부참여율과 기부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이념성향의 경우 미국에서는 포괄적 기부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가졌으나, 한국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음
    - 한국의 Secular 기부참여율에는 종교성과 이념성향이, 기부금액에는 종교성이 유의한 영향을 가졌음
    - 한국의 Secular 기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종교적 성향이 강할수록, 이념성향이 보다 진보적일수록, 그리고 종교적 성향과 진보적 이념성향이 결합될 때, 즉 이 둘이 동시에 강화될수록 국민들의 기부참여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Ⅳ. 요약 및 결론: Who cares for neighbors?

- 셋째, 종교성 및 이념성향의 조합과 기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미국은 종교적 보수와 종교적 진보가 유사한 참여율을 보이나, 한국은 종교적 진보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종교적 중도가 가장 높은 기부금액과 기부노력을 행하고 있음
  - 종교성에 있어 중립적 성향을, 이념성향에 있어 중도적 성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Secular 기부를 분석한 결과, 종교적 진보의 기부참여율, 종교적 중도의 기부금액 및 기부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종교적 > 중립적 > 세속적 순서로, 보수보다는 중도와 진보가 기부행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관찰됨
- 넷째, 종교성 및 이념성향의 조합과 자원봉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미국은 종교적 진보가, 한국은 종교적 중도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임
  - 종교성에 있어 중립적 성향을, 이념성향에 있어 중도적 성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Secular 자원봉사를 분석한 결과, 종교적 중도의 자원봉사 참여율 및 자원봉사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종교적 > 중립적 > 세속적 순서이나, 이념에서는 일관적인 패턴이 관찰되지는 않았음

Ⅳ. 요약 및 결론: Who cares for neighbors?

- Brooks의 연구모형과 다른 요인들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한국 국민들의 나눔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음
  - 전반적으로 (세속적 보수에 비해) 종교적 보수/중도/진보(+중립적 중도/진보)인 경우, 자영업/서비스직/화이트칼라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유배우자인 경우, 시골지역인 경우, 지인의 나눔을 관찰한 경우, 학창시절에 나눔을 자발적으로 실천해본 경우, 비영리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기부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보임(한편, 불교인 경우 무교에 비해 덜 적극적임)
  - 전반적으로 (세속적 보수에 비해) 종교적 보수/중도/진보인 경우, 농림어업/자영업/화이트칼라/주부/학생인 경우, 천주교인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고졸인 경우, 학창시절에 나눔을 자발적으로 실천해본 경우, 영리·정부·언론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하는 경우, 자원봉사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보임

IV. 요약 및 결론: Who cares for neighbors?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결과를 정리해 볼 수 있음

- 기본적으로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 기독교/천주교를 갖는 국민, 자영업/화이트칼라인 국민이 이웃을 위해 상대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나눔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중간소득계층의 기부행동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부의 상대적 규모 측면에서는 가장 낮은 소득수준의 시민 역시 이웃을 위한 나눔에서 높은 수준의 적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관찰됨
  - 또한 2009년과 비교하여 나눔 참여에 대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유의한 영향력이 미약해 지는 양상인데, 이는 우리사회의 기부 및 자원봉사에의 참여가 이런 특성들에 의해 설명되는 바가 작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즉 나눔의 보편화가 확산되는 경향에 의한 것으로 해석됨
- Brooks의 연구(2006)결과와 비교해 볼 때, 미국과 한국 모두 종교성과 이념성향이 나눔행동과 연관성을 보이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종교적 보수 및 종교적 진보가, 한국에서는 종교적 중도 및 종교적 진보가 나눔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적극성을 지니고 있음이 관찰됨. 종교성이 사회를 위한 나눔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됨
- 종합적인 모형 추정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 보수/중도/진보인 경우, 자영업/화이트칼라인 경우, 높은 연령, 학창시절에 나눔을 자발적으로 실천해본 경우, 다른 형태의 나눔에 참여하는 경우 나눔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관찰됨
- 이웃의 돌봄은 한국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향후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보다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실증적인 연구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 되길 바람

감사합니다.